

## 『레드 북』에 나타나는 심혼의 분화 과정과 신의 대극성의 문제

김 기 환\*

### 국문초록

『레드 북』은 칼 융이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심리학적 실험을 기록한 책이며,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레드 북』은 융이 ‘깊은 곳의 정신’에 사로잡혀 ‘이 시대의 정신’을 전복하고 무의식으로 내려가 자신의 심혼을 되찾는 과정, 심혼이 심혼-심령의 쌍으로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인간 정신의 심연으로부터 대극의 형태로 다가오는 신의 이미지를 직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깊은 곳의 정신’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이었으며, ‘아직 오지 않은 신’의 도래였다. 융은 그때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집단정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집단적 무의식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 여정에서 먼저 잃어버린 자신의 심혼과 조우했고, 살로메-엘리아, 헬레나-시몬, 바우키스-필레몬의 쌍으로 나타난 심혼-심령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험했다.

개성화 과정 초기의 심혼 체험은 의식을 어둡게 하고 사로잡는 악마적인 기세로 먼저 다가온다. 『레드 북』의 전반적인 내용은 융이 그 악마적인 기세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기세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혼의 정동적으로 사로잡는 측면에 대한 체험은 신의 어두운 측면인 사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고, 그 체험 과정에서 얻은 일련의 통찰력은 신의 밝은 측면인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화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신의

대극성을 직면하였다. 그리고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인 자기(the Self)의 출현을 언급했다.

그런 체험을 통해 훗날 융은 인간의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육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신을 경험 과학적인 측면에서 밝혀냈다. 신성의 육화 과정은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의미임을 구명하였다.

**중심 단어** : 깊은 곳의 정신; 심혼과의 조우; 심혼-심령의 분화; 신의 대극성; 심리학적 신생성적 관점.

## 서 론<sup>1)</sup>

1913년은 칼 융(Carl G. Jung)의 생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였다. 그의 나이 38세였다. 그 해에 융은 ‘무의식과의 대면’으로 알려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을 시작했다.<sup>2)</sup> 그 실험은 1930년까지 16년간 지속하였다. 이 실험을 하는 동안 그는 정신 내면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정감들을 환상(fantasy)으로 변환하여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기법을 발견했다. 나중에 융은

1) 『레드 북』 해설에 사용된 참고문헌들은 대부분 융 자신의 중·후기 저작들이다. 융의 저작들과 『레드 북』에 나타나는 초기 사상 사이에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45년의 시간적 인 간격이 존재한다. 융의 초기 사상과 중·후기 사상 사이의 발전과정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드 북』 이외의 융의 저작들로부터 인용한 내용에는 연도를 따로 표기했다. 그 연도는 참고문헌의 출판 연도가 아니라 융이 그 글을 썼거나 혹은 강연한 해를 가리킨다.

2) 융의 무의식과의 대면 작업이 시작될 무렵의 유럽은 문화적으로는 문학, 심리학, 시각 예술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작가들은 인습적인 표현 방식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내면 체험을 탐구하고 묘사했다. 심리학자들은 철학적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술가와 작가들이 탐색을 시도했던 깊은 영역으로 파고 들어갔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개인은 영성적 문화적 쇠신을 추구하면서 내면 체험의 실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찾고 있었다. 후고 발(Hugo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13년의 세계에서 삶은 완전히 한정적이고 틀에 갇혀있다. 일종의 경제적 운명론이 지배적이고, 각 개인은 특정한 역할이 배정되었고 그 역할에 따라 자신의 관심사나 성격이 배정되었다. 교회는 ‘구원 공장’으로 전락해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밤낮으로 개인을 괴롭히는 긴급한 질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만한 강력한 힘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위기 속에서 융은 장기간에 걸친 자기 실험을 생각해냈고, 그것으로부터 문학적 형식을 띤 심리학 저작인 『새로운 책』을 만들어냈다. Jung CG(2009): *The Red Book*, Norton, New York, p194.

이 기법을 ‘적극적 명상’(Active Imagination)이라 불렀다. 그는 이 환상들과 환상에 등장한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을 『블랙 북』이라 불리는 자신의 일련의 일기장에 기록했다. 그리고 『블랙 북』의 내용 중 특정 기간의 내용을 선택하여 가다듬고, 그에 대한 성찰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그 내용들을 붉은색 가죽으로 제본된 『새로운 책』(Liber Novus)이라 명명된 책에 예술적인 서체로 옮겨 적었고, 자신이 본 환상들을 직접 그린 그림들도 삽입하였다.<sup>3)</sup> 그것이 바로 『레드 북』이다. 『레드 북』은 1913년 11월 12일-1916년 6월 6일까지의 『블랙 북』의 내용을 작업한 책이다.<sup>4)</sup>

융은 그의 자서전 『회상, 꿈, 그리고 사상』에서 자신의 모든 저작들, 모든 창조적인 작업들은 1912년부터 시작되었던 환상들과 꿈들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분출되었던 심상들(images)을 기록하고 『레드 북』으로 옮겨 적었던 그 몇 년 동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 시기 동안 융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 시작되고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자신의 작업들은 무의식으로부터 터져 나와 자신을 휩쓸었던 그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작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sup>5)</sup> 『레드 북』에 나오는 내용들은 융이 일생을 두고 작업해야 할 원재료(prima materia)였다.

융은 자서전에서 그 당시 ‘적극적 명상’을 통해서 했던 내면 작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내가 감정(emotions)을 심상으로 가깝스로 번역해내는 것 즉 감정 안에 숨어 있는 심상들을 발견하는 그만큼 내적인 안정감이 생겼다. 만일 내가 그 심상들을 감정 속에 숨겨진 채 그냥 내버려 뒀었다면, 그것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른다. 아마 나는 그 무의식의 내용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아마 어쩔 수 없이 노이로제에 걸렸을 것이고 결국 그 무의식의 내용을 파괴했을 것이다. 나의 실험을 통해 치료의 견지에서 감정 뒤에 숨어 있는 특정 한 심상들을 의식화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 가를 배울 수 있었다.<sup>6)</sup>

3) 위의 책, VIII.

4) Jung CG(2020): *The Black Books I*, Norton, New York, p114.

5) Jung CG(1989a):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pp192-199.

6) 위의 책, p177.

융은 스스로가 노이로제와 같은 심리상태를 극심하게 겪고 그것을 적극적 명상으로 풀어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신치료 방법을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추출 해냈다.

『레드 북』은 융이 ‘깊은 곳의 정신’에 사로잡혀 ‘이 시대의 정신’을 전복하고 무의식으로 내려가 자신의 심혼을 되찾는 과정, 심혼이 심혼-심령의 쌍으로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인간 정신의 심연으로부터 대극의 형태로 다가오는 신의 이미지를 직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 안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인 자기(the Self)의 출현을 언급하고 있다.

융은 『레드 북』에 서술된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자신의 심리학을 통해 신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 현상적으로 육화하는 정신적 실체임을 밝혀냈다.<sup>7)</sup> 이 “심리학적 신생성적”(psychological and theogenic)<sup>8)</sup> 관점은 융 심리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며 인간의 정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 융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이 자아의식의 한계 안에 닫혀 있는 체계가 아니라 신적인 영역으로 열려 있는 체계임을 밝혀냈다.

## 깊은 곳의 정신

『레드 북』의 서문 ‘다가오는 것의 길’에서 융은 ‘깊은 곳의 정신’<sup>9)</sup>이 자신을 사로잡아 자신의 내면세계로 하강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도록 촉구했음을 말한다.

7) 융이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신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에 포착되는 실제적 현상으로서 신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분석심리학의 틀 안에서 ‘하느님’이란 일종의 자율적 콤플렉스이며, 하나의 역동적인 이미지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심리학은 하느님에 관해 그 이상을 알 수 없다. 심리학은 하느님의 실제적 존재를 입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 나는 단지 하느님-콤플렉스 혹은 하느님 이미지의 정신적 실체에 관해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 나의 모든 생각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명칭들, 본보기들, 가설들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물(物) 자체’(noumenon)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Jung CG(1975): *C. G. Jung Letters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572-573.

8) Jung CG(2020): 같은 책, p42.

9) 융은 이 ‘깊은 곳의 정신’을 아직 ‘아직 오지 않은 신’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의식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신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신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신 자체가 아니라 궁극의 의미로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이다. 신은 하나의 이미지이며,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궁극의 의미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신을 숭배해야 한다. 궁극의 의미는 이미지와 기세(force)가 하나가 된 것이며, 장엄함과 기세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Jung CG(2009): 같은 책, pp229-230.

나는 이 시대의 정신 외에 또 하나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즉,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의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 인간이라는 자만심이 강한데다가 주제넘은 시대 정신 때문에 판단력까지 잃게 된 나는 오랫동안 이 다른 정신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깊은 곳의 정신이, 다시 말해 태곳적에 시작해서 아득한 미래까지 이어질 그 깊은 곳의 정신이 세대마다 변하는 이 시대의 정신보다 더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깊은 곳의 정신은 과학에 대한 나의 신뢰를 앗아갔고, 사물들을 놓고 설명하고 정리하는 즐거움을 강탈해갔으며, 내 안에서 이 시대의 이상(理想)들에 대한 헌신이 시들도록 만들었다. 깊은 곳의 정신은 나로 하여금 더없이 단순하고 최종적인 것들을 직시하도록 강요했다. (...) 깊은 곳의 정신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쓰디쓴 약을 들이켜야 했다. (...) 깊은 곳의 정신이 나를 붙잡아서 그 쓰디쓴 약을 나의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다.<sup>10)</sup>

여기서 융은 ‘깊은 곳의 정신’과 함께 ‘이 시대의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융은 『레드 북』 제1권 6장 ‘정신의 분리’에서 ‘이 시대의 정신’을 자신을 지배해왔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나의 왕에게 속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나의 왕은 내가 바랐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존재였다. (...) 나의 왕은 내가 이상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다. (...) 지나치게 오래된 것은 모두 사악해진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상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 이 시대의 정신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 때, 깊은 곳의 정신이 나를 붙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sup>11)</sup>

폰 프란츠는 왕의 이미지를 집단정신의 지배적인 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2)</sup> 왕으로 표현된 ‘이 시대의 정신’은 한 개인이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배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규범이나 가치 혹은 세계관(Weltanschauung)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이 외부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며, 거부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요청으로 다가오는 특성이

10) 위의 책, p230.

11) 위의 책, p241.

12) Von Franz ML(1993): *The Feminine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91.

있다. 개인은 집단정신에 의해 작동되는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집단정신에 동화되어간다. 그리고 집단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가면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집단정신에 적응하고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집단정신과 동일시가 나타난다.

폰 프란츠는 집단정신에 동화된 인간의 의식은 외향적인 일방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데 이것은 의식의 전형적 경향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일방성으로 인해 개인은 항상 본능들로부터 단절되고, 균형 잡히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며, 완전히 자연의 본성과 거슬러 가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sup>13)</sup> 융(1954)은 개인의 의식이 집단의 정신이 제시하는 생각과 의견들을 선호하고 그것들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살아가게 되면 ‘집단적 무의식’<sup>14)</sup>의 내용들이 억압된다고 했다.<sup>15)</sup>

융은 『레드 북』 제1권 4장 ‘사막’에서 “왜 나의 자아는 사막 같은가? 나는 나 자신의 밖에서, 그러니까 인간들과 사건들 속에 지나치게 많이 묻혀 산 것인가?”<sup>16)</sup>라고 자문하면서 ‘이 시대의 정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살아왔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융(1952)은 “이런 상황이 되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에 대치되는 입장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치적인 입장은 일종의 계시의 형태로 의식으로 분출할 수 있다. (...) 그것은 개인의식의 일방성을 보상한다”<sup>17)</sup>고 했다. 융은 집단정신에 대치되는 견해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

13) Von Franz ML(2002): *Animus and Anima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p17.

14)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이며, 보통은 의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영역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초개인적이며, 보편적이고, 개인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영역이다. 집단적 무의식이 드러나면 자아는 그것이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고, 누미노제 혹은 신성한 것으로 느낀다.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원형들과 그 원형들의 특정한 상징적 표현인 원형적 이미지들이다.” Edinger EF(1994): *The Eternal Drama*, Shambhala, Boston, p194.

15) Jung CG(1960): “On the Nature of the Psyche”,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19.

16) Jung CG(2009): 같은 책, p235.

17) Jung CG(1969c): “Answer to Job”,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435.

으로 보았다.<sup>18)</sup>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의식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 중심성을 넘어서서 자아가 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신적 실체에 종속되어 있다는 자각에 이르는 과정이다.”<sup>19)</sup>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이 집단정신에 갇혀있던 상태에서부터 분화되어 나와야 한다. 융(1916)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집단을 모방하기 혹은 의식적으로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용인되고 허락된 길들로부터 가는 것이다”<sup>20)</sup>라고 했다. 반면에 개성화는 집단이 요구하는 “개인적 순응성과 집단성으로부터 개인을 잘라내는 것이다”<sup>21)</sup>라고 했다.

융(1916)은 “개성화와 집단정신은 양 대극의 쌍이며, 두 갈래로 분기하는 운명들이다”<sup>22)</sup>라고 했다. 이 양 대극은 양립할 수 없는 운명의 힘들이다. 융은 집단의 정신인 ‘이 시대의 정신’과 개성화를 요청하는 ‘깊은 곳의 정신’이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깊은 곳의 정신’이 인도하는 운명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정신’을 전복시켜야 한다. 홀리스(Holli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성화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적인 권위를 전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 외부적인 권위는 개인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속한 문화일 수도 있고, 자신이 믿는 신상(神像)일 수도 있다. 개성화는 일종의 혁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내면의 권위로 나아가기 위해 외부적인 권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sup>23)</sup>

18) 융은 인생의 중반기로 접어드는 35-40세 사이에 인간 정신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준비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대체로 이 시기가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이며 중년기의 삶이 시작되는 때이다. 융은 인생의 전반기 때의 삶의 계획에 따라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반기의 삶의 법칙을 후반기에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다. 전반기의 삶이 한 개인이 성장하여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집단정신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사는 과정이었다면, 후반기는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Jung CG(1960): 같은 책, pp395-400.

19) Edinger EF(1994): 같은 책, p195.

20) Jung CG(1989b): *The Symbolic Life: Miscellaneous Writin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452.

21) 위의 책, p451.

22) 위의 책, p452.

23) Hollis J(2004): *Mythologems*, Inner City Books, Toronto, p47.

‘깊은 곳의 정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무너져야 하며 그것은 『레드 북』 제1권 7장 ‘영웅 살해’에서 지그프리트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게르만족의 영웅 지그프리트가 나의 손에 쓰러져야 했다니, 더 없이 충직하고 용감한 자개! 그의 내면엔 내가 보다 위대하고 보다 아름답다고 여긴 모든 것이 있었다. 그는 나의 힘이었고 나의 용기였으며 나의 금지였다.<sup>24)</sup>

영웅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진 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나는 꼭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웅은 신의 적이 되었다. 이유는 영웅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신들은 인간의 완벽을 시기한다. 인간들이 완벽할 경우 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5)</sup>

지그프리트는 ‘이 시대의 정신’과 동일시하며 살아왔던 용의 내면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집단정신이 이상화한 성취나 과업을 향해 매진했던 용의 심리적 역동성을 상징하며, ‘이 시대의 정신’이 낳은 총아의 이미지이다. 용은 자서전에서 지그프리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그프리트는 독일 사람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즉 자기의 의지를 영웅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나도 그와 같은 것을 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이런 영웅적 이상과의 동일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에 순종해야 할 자아 의지보다도 높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26)</sup>

용은 지그프리트 같은 영웅적 의지로 삶의 전반기를 살아왔다. 『레드 북』 제1권 1장 ‘영혼의 재발견’에서 용은 40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명예와 권력, 부(富), 지식,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복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의 정신’이 참을 수 없는 내적 갈망을 품도록 몰아붙였다고 한다.<sup>27)</sup> 결국 용은 이렇게 외친다.

24) Jung CG(2009): 같은 책, p242.

25) 위의 책, p244.

26) Jung CG(1989a): 같은 책, pp180-181.

27) Jung CG(2009): 같은 책, pp231-232.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어디 있는가?”<sup>28)</sup>

융은 집단의 정신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살아오면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자각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심리 발전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융은 이제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찾아가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자신의 영혼이 신적인 의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신성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깨달아 갈 것이다.

### 심혼과의 조우

『레드 북』의 제1권 9장 ‘신비. 조우’는 “내가 신의 본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밤에,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았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노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처녀’와 ‘검은 뱀’이 나타난다.

이 세 존재는 아무런 형상도 없이 그저 막연한 기세로 융을 사로잡았던 ‘깊은 곳의 정신’이 의식의 장(場)에 등장하면서 갖 분화되어 처음으로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먼저 검은 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융(1939)은 “뱀은 ‘숨어계신 하느님’(deus absconditus)이며,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하느님의 불가해한 측면이다”<sup>29)</sup>라고 했다.

검은 뱀은 두 존재만큼 눈에 띄지도 않고 마치 장면의 소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융의 ‘신곡’(divine drama) 전체를 뒷배경에서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획자’(mastermind)이자 추동력(driving force)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세 존재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깊은 곳의 정신’을 상징하는 검은 뱀이 의식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막 ‘심혼(心魂; soul)과 심령(心靈; spirit)’<sup>30)</sup>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28) 위의 책, p232.

29) Jung CG(2008): *Children's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46. “일반적으로 볼 때 뱀은 거의 항상 제 종교들에 존재하는 지하계-여성적 요소를 의미한다. 뱀은 그 요소를 표현하는 적절한 상징이다. 이원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종교 체계 안에서 뱀은 밝음, 남성성, 영성적인 세계와는 대척점에 있는 악마적인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의 낙원 신화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같은 책, p241.

30) soul과 spirit을 한국말로 영혼과 정신으로 각각 번역하기도 하지만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 심(心)자를 붙여서 심혼과 심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통하는 것 같다. 심혼-심령의 쌍은 에로스-로고스 대극 원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장면이다. 검은 뱀의 추동력은 심혼으로, 위대한 기획자의 측면은 심령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분화의 형국은 다음의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깊은 곳의 정신) → 심령(心靈; spirit) + 심혼(心魂; soul) → 자아의식

심령들은 자아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고 신과 연관된 인간의 심리적 양상이다. 인간이 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인간 내면의 요소이다. 반면에 심혼은 심령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아와 보다 가깝게 연관된 인간의 본성적 요소이다. 위의 도식에서 자아의 입장에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보면 심혼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다. 분석심리학에서는 ‘내적 인격’이라고 부르는 ‘아니마/아니무스<sup>31)</sup>’를 의미한다. 『레드 북』 제1권의 첫 번째 부분인 ‘심혼의 재발견’, ‘심혼과 신’, ‘심혼의 쓸모에 관하여’에서 융이 자신의 내면에서 최초로 만난 무형상의 존재는 아직 심혼-심령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심혼(soul)이다.<sup>32)</sup>

『레드 북』은 융이 심혼과 심령을 직면하고 통합<sup>33)</sup>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곳의 정신’으로 다가온 신에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 과정에서 심혼과 심령의 짝이 점점 분화되어가는 모습이 이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융이 아니마를 통합하는 과정이었음을 『레드 북』은 말하고 있다. “아니마를 통합하는 이 과정이 『새로운 책』과 『블랙 북』의 주제였다.”<sup>34)</sup>

31) “남성의 경우에 무의식은 여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아니마(anima)’라고 칭하는 모습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무의식이 남성의 모습을 취하는데 ‘아니무스(animus)’라 부른다.” Jung CG(1988): *Nietzsche's Zarathust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729.

32) 융은 “나는 아니마를 ‘삶 자체의 원형’으로 정의했다. 다른 원형들로부터 분화되어 하나의 원형으로 나타나기 전까지의 아니마는 무의식 전체가 인격화된 것이다”라고 했다. Jung CG(1956): 같은 책, p437. 따라서 융이 자신의 내면에서 최초로 만난 심혼은 전체 무의식의 발현인 ‘깊은 곳의 정신’이 자아의식에 한 걸음 더 다가와 하나의 원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33) 본 논문에서 심혼과 심령에 대해 사용하는 ‘통합’이라는 말은 원형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힘을 개인이 인식하고 의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34) Jung CG(2009): 같은 책, p218. “아니마는 남성의 심리 안에 있는 모든 여성적 심리의 경향성이 인격화된 것이다. 막연한 여러 느낌과 사로잡는 기분, 예견적 육감,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 개인적 사랑의 능력, 자연에 대한 느낌, 무의식과의 관계 등과 같은 것이다.” Jung CG(1964b):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Man and His Symbols*, ed. By Jung, C.G., Anchor Books, New York, p177.

『레드 북』에는 아니마가 하나의 정립된 개념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책에 등장하거나 언급되고 있는 살로메, 헬레나, 바우키스 등의 인물은 아니마의 전형(典型)으로 볼 수 있다. 이브, 헬렌, 마리아, 소피아는 후에 폰 프란츠가 용이 이미 정립했던 아니마 발달 이론에 붙인 명칭들이다.<sup>35)</sup> 다음은 『레드 북』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는 심혼-심령의 분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심혼-심령의 분화 과정은 결국에는 신의 대극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사탄의 이미지로 귀착됨을 보여준다.<sup>36)</sup>

- 1) 살로메(이브)-엘리아 ----- 본능적 생물학적 관계성(아니마 기분<sup>37)</sup> 수반함)
- 2) 헬레나(헬렌)-시몬 마구스 ----- 낭만적 미학적 관계성(아니마 기분 수반함)
- 3) 바우키스(성모 마리아)-필레몬  
----- 영성적 번성의 추구(아니마 기분 중단, 마나 인격의 형성)
- 4) 사탄-그리스도 ----- 소피아(신성한 지혜), 자기실현<sup>38)</sup>

각 아니마 단계에서 짝으로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엘리아, 시몬, 필레몬)은

35) 위의 책(1964b), pp185-186.

36) 아니마 발달 단계는 첫 번째 아니마가 통합되어야 다음 아니마가 나타나는 식의 단선적이고 순차적인 진행 단계가 아니다. 여기에 제시된 아니마 발달 단계의 도식화는 아니마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한 남성의 내면에서 그 모든 양상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자아의식이 외부세계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외적 인격의 수준과 그에 상응하여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보상작용의 필요성에 따라 각 단계의 아니마가 개인에게 발현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아니마가 더 우월하고 그 전 단계의 아니마가 저급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폰 프란츠는 아니마 발달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의식의 모든 내용물이 그렇듯이 고상한 것과 저급한 것은 하나이며, 우리가 영성적인 것과 본능적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원형적 상징이 드러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나타난다. 오직 의식만이 두 요소를 따로 떼어놓는다.” Von Franz ML(1996):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94.

37) “아니마는 남성에게 씨무룩한 기분(moods)을 일으킨다.” Jung CG(1966):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06.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힐 때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남성이 주로 홀로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이상야릇한 감정들과 공상들은 미분화된 아니마가 일으키는 심리 현상이다. 그것은 움짱달짝 못하게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브와 헬렌 단계의 아니마 발전 상태에 있는 남성들에게는 아니마 기분을 통한 무의식의 사로잡는 힘이 아직 지배적이다.

38) Von Franz ML(1998): *C. G. Jung His Myth in Our Time*, Inner City Books, Toronto, p167. 『레드 북』에는 소피아이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폰 프란츠는 신의 역설적인 대극 융합의 결실로서 아니마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소피아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자기(the Self) 혹은 성령(the Holy Ghost)의 출현으로 보았다.

심령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한다. 각 단계의 아니마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성 안에서 형성되는 의식적인 통찰력(spirituality) 혹은 삶의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마 안에 자용동체적으로 존재하는 노현자 원형이 분화되어 의식 안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융은 “아니마가 점점 분화될수록 노현자의 모습이 아니마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심령’의 원형으로서 형상을 드러낸다. 이 원형은 아니마에 대하여 ‘영적인’ 아버지로서 관계한다”<sup>40)</sup>고 했다. 융(1935)은 심령을 개인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이끌어 가는 힘(leading force)이자 관념이라고 했다.<sup>41)</sup> 심령은 개인을 전체 정신(psyche)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목적 지향적인 힘이자 관념이다. 『레드 북』 제1권 9장 ‘신비. 조우’에서 살로메와 함께 등장한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리야: 나와 나의 딸은 영원 이래로 하나였어.<sup>42)</sup>

융(1935)은 아니마와 노현자는 실제로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종종 함께 등장한다고 했다.<sup>43)</sup> 융(1935)은 심혼과 심령의 자용동체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39) 융(1937)은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인이었던 니체를 예로 들면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의 다양한 양상들을 직면하면서 점점 심령의 통찰력을 쌓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그가 지성의 세계에서 너무나 외로워지면 반드시 하강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서 그는 삶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모습을 한 삶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아니마에 도달한다. 그것은 언제나 따뜻함과 정서가 있는 곳 또한 동시에 삶의 혼란스러운 어두움이 있는 낮은 영역으로의 하강이다. 그가 음(陰)의 영역으로 하강할 때 그는 먼저 삶의 모든 아니마적인 측면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또한 삶의 지혜(원형을 표상하는 노인)와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성의 지성 안에서 깊이 숙고되어서 드러나는 삶이다.” Jung CG(1988): 같은 책, p1172.

40) Jung CG(1956): 같은 책, p437. “노현자의 형상은 여성에게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 지혜의 요소는 대지모(the Earth Mother)라 불리는 모성 원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안에서 이런 심상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즉 경험적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먼저 무의식의 의인화로서 아니무스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형상으로 지혜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무의식의 의인화로서 아니마가 먼저 나타나고 노현자의 형상으로 지혜의 요소가 나타난다.” Jung CG(1988): 같은 책, p523.

41) 위의 책(1988), p380.

42) Jung CG(2009): 같은 책, p246.

43) Jung CG(1988): 같은 책, p757.

아니마는 과거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녀는 모든 비법을 알고 있으며 사실상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자 마법사를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 (...) 그래서 때로는 아니마가 거의 자웅동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아니마와 노현자 사이에는 자웅동체(hermaphrodite) 원형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니마가 남성성의 원리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아니마가 아니무스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니무스는 심령(spirit)이다. 그것은 노현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마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면, 무의식의 여성적인 측면은 다소 사라져가고 대신에 그 남성적인 아니무스 측면인 노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노현자는 사실상 신성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노현자를 만난 그 사람은 자기(the Self)의 발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기 때문이다.<sup>44)</sup>

융(1955-56)은 “우리가 삶과 세상을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를 길고도 철저한 성찰에 몰아가는 체험들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체험들로부터 통찰력과 확신감이 자라난다. 그리고 이 체험은 두 원형에 의해 통제된다. 그것은 ‘삶’을 상징하는 아니마와 ‘의미’가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노현자 원형이다”<sup>45)</sup>라고 했다. 폰 프란츠는 “아니마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교묘히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개입에 의존하도록 강제한다”<sup>46)</sup>고 했다. 아니마는 탈출구나 해결책이 없는 갈등 상황으로 남성을 몰아붙임으로써 남성이 자신 안에 있는 심령의 힘을 자각하도록, 달리 말하면 아니마로부터 노현자 원형을 분화시키도록 촉구한다. 갈등 상황을 선불리 회피하지 않고 진득하게 견디면서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때 무의식으로부터 그 갈등 상황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현자의 지혜와 힘이 발동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심혼의 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4) 위의 책, p395.

45) Jung CG(1970):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33.

46) Von Franz ML(1996): 같은 책, p95.

## 심혼의 분화 과정

### 1. 살로메-엘리아

『레드 북』 제1권 9장 ‘신비, 조우’에서 융은 한 노인과 아름다운 처녀를 만난다. 그들은 엘리아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딸 살로메<sup>47)</sup>이다. 융은 엘리아에게 살로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헛된 탐욕과 죄스러운 욕정의 화신이 아니었던가요?<sup>48)</sup>

살로메는 아니마 발전 이론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브 아니마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브 아니마는 남성의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관계성을 관장한다. 이브 아니마 단계에 있는 남성에게 “여성은 어머니와 같으며 오로지 수태시키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융은 말했다.<sup>49)</sup> 이브 아니마는 남성이 외부의 사물이나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로 원초적인 충동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도록 몰고 간다. 그래서 이브 아니마는 관능적이다.<sup>50)</sup> 게다가 살로메가 장님으로 등장한다. 원초적 충동과 욕망의 맹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충동이나 욕망은 자신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적 혹은 육체적 대상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대로 물질세계와의 접촉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브 아니마는 주로 물질세계에 투사가 되어 나타난다. 아니마를 자신의 정신 안에서 살아있는 심리적 현실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마가 자신을 보여줄 방법은 물질적 대상과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브 아니마는 외부의 대상에 투사되어 구체화 되어

47) “살로메는 계부 헤로데 대왕과 헤로디아의 딸이다. 살로메는 신약성경의 복음서(마태오 14장, 마르코 6장)에 등장한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대왕에게 그의 제수와 결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고, 헤로데는 그를 감옥에 가둔다. 헤로데 대왕의 생일날 그 앞에서 살로메가 춤을 추었고,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요한은 참수당했다.” Jung C.G.(2009): 같은 책, p245.

48) 위의 책, p246.

49) Jung CG(1954):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74.

50) “아니마는 색정적 환상의 형태를 취하여 가장 빈번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남자들은 영화나 스트립 쇼를 보거나 외설적인 것을 공상함을 통해 자신들의 환상 세계를 키우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은 아니마의 거칠고 원시적인 측면으로서, 남자가 감정 관계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에만, 즉 삶에 대한 그의 감정적 태도가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강력한 것이 된다.” Jung CG(1964b): 같은 책, p180.

나타나고 또한 육체와 동일시되어서 온갖 심리-육체적 정동을 일으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온다. 그로 인해 남성의 눈앞에는 자신을 매혹하는 대상이 늘 신기루처럼 끝도 없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은 탐욕과 정욕으로 들끓게 된다. 물질과 육체에 투사된 아니마를 알아보고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 헛된 환상을 향한 정염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탐욕과 정욕은 이브와 헬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니마가 남성을 다루는 두 가지 주된 술책이다.

『레드 북』의 다음 구절들은 눈먼 살로메가 남성 안에서 일어나는 맹목적인 쾌락의 충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브와 뱀은 나의 다음 단계가 쾌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다시 오디세우스처럼 길고 긴 방랑이 시작될 것임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sup>51)</sup>

내가 나의 생각의 세계에서 자유를 자각했을 때, 살로메가 나를 포옹했고, 따라서 나는 한 사람의 예언자가 되었다. 이유는 내가 태초의 시작에서, 숲에서, 그리고 야생 동물에서 쾌락을 발견했기 때문이다.<sup>52)</sup>

나도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구원의 피가 흐른다. 자기희생을 통해서 나의 쾌락이 변하면서 보다 높은 원리로 승화되고 있다. 사랑은 앞을 보지만, 쾌락은 눈이 멀어 있다.<sup>53)</sup>

이브 아니마의 지배하에 있는 남성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육체적 쾌감을 좇는 정욕을 추구하는데 리비도를 주로 사용한다. 이브가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충동이 내포하고 있는 창조적인 목적과 의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충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브 아니마가 맹목적이고 관능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맹목적인 본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융(1918)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전히 동물적 충동들로부터 본능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 또한 나온다. 야생적이고 길들지 않고 맹목적인 본능을 생산해내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원시적인 힘에 제동을 걸고 길들이는 자연의 법칙과 문화적인 형식들

51) Jung CG(2009): 같은 책, p247.

52) 위의 책, p251.

53) 위의 책, p254.

이 자라 나온다.<sup>54)</sup>

융(1934)은 “이것(일종의 자연의 지혜)은 완벽하게 자연적인 실재의 정신적 혹은 영적인 측면이다. 말하자면 생명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성이다”<sup>55)</sup>라고 했다. 살로메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가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는 영적 목적성’에 대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심혼이 주로 육체의 영역에 연루되어 있고 물질세계에 맹목적으로 투사되고 있으면 남성의 마음은 육체가 일으키는 온갖 정감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남성의 무의식 안에서는 이브 아니마가 주된 지배 세력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은 또한 자아가 이브 아니마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다음 단계의 아니마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아니마 안에 이미 심어놓았다. 엘리야가 바로 그 힘이다. 엘리야는 남성이 이브 아니마를 객관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니마로부터 얻게 되는 통찰과 힘을 상징하는 형상이다.

융(1955)은 심혼이 육체와 물질세계에 연루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확장과 더불어 진리의 심령이 심혼의 움직임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sup>56)</sup> 또한 “심혼은 오로지 심령에 의해 육체에 대한 자신의 본성적인 집착으로부터 해방될 때에만 구원될 수 있다”<sup>57)</sup>라고 말했다. 융은 육체가 일으키는 온갖 부정적인 정동을 초월한 평정심의 상태를 연금술의 용어를 빌려와 ‘마음의 단일성’(unio mentalis)이라 불렀다. 마음의 단일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혼이 성가신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심령의 통제하에 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분리의 목적은 ‘육적인 욕망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affections)’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소란스럽고 성가신 육체의 영역보다 우위에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sup>58)</sup> 그러므로 분리된 육체의 영역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로부터 심혼과 그녀가 일으키

54) Jung CG(1964a): “The Role of the Unconscious”,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1.

55) Jung CG(1988): 같은 책, p9. 1934년 5월 2일 세미나.

56) Jung CG(1970): 같은 책, p521.

57) 위의 책, p542.

58) 위의 책, p471.

는 투사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용어로 본다면 관능적인 현실로부터 등을 돌림, '수만 가지의 것들'에게 매력적이고 기만적인 매혹을 부여하는 환상 투사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내향적 태도, 자기반성, 명상 그리고 욕망과 그 욕망의 동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함을 의미한다.<sup>59)</sup>

이 관점에서 보면 살로메-엘리야 짝의 등장은 용의 이브 아니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령의 통제하에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용의 의식에서 이브 아니마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심령 엘리야의 힘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이다.

『레드 북』의 다음 구절들은 이브 아니마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살로메가 눈을 뜨고 앞을 보기 시작한다. 즉 아니마가 외부 세계어로 명목적으로 투사되는 작용이 멈추고 이브 아니마 본래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용에게 살로메를 선사하고 있다.

엘리야와 살로메! 순환이 완성되고, 신비의 문들이 다시 열렸다. 엘리야가 눈을 뜬 살로메의 손을 잡고 이끌고 있다. “자, 내가 자네에게 살로메를 주겠네. 그녀는 이제 자네 거야.”<sup>60)</sup>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예기치 않게 그 신비들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정신과 욕망의 권력을 처음 보여준 장면으로 돌아갔다. 내가 내 안에서 쾌락을 성취하고 나 자신에 대한 힘을 확보했던 것처럼, 살로메는 자기 안에서 쾌락을 잃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배웠으며, 엘리야는 지혜의 권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살로메는 유혹의 힘을 잃고 사랑이 되었다.<sup>61)</sup>

엘리야는 ‘지혜의 권력’을 잃었고, 살로메는 ‘유혹의 힘’을 잃었다. 심혼과 심령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력을 상실하고 긍정적 특성으로 변환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 장면은 용이 살로메-엘리야의 이미지로 나타난 심혼-심령의 쌍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을 뜬 살로메는 아니마의 다음 발전 단계인 헬렌 아니마를 예견한다.

59) 위의 책, pp472-473.

60) Jung CG(2009): 같은 책, p323.

61) 위의 책, p324.

## 2. 헬레나-시몬 마구스

폰 프란츠에 의하면 “헬렌 아니마는 낭만적이고 미학적 단계가 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성적인 요소들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sup>62)</sup> 헬렌 아니마는 남성이 삶에서 지성적, 탐미적, 낭만적 가치를 추구함을 통해 지성적인 만족을 얻도록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다.<sup>63)</sup>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음식이나 섹스를 통해 육체적 만족을 주는 존재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 그래도 여전히 성적인 에로스가 지배적이다. 학문적 연구나 예술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고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학적이고 탐욕적인 태도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단계이다.

융은 『레드 북』 제2권 2장 ‘숲속의 성’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삶을 연구에 바치고 있는 사람은 영적 삶을 영위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영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넓은 한계 안에서 살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도 또한 외면적이다. 외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외면적이다. 분명히, 그런 학자들은 외적 사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외적 사상들을 위해서 산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대상을 위해 산다는 뜻이다. (...) 따라서 그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다.<sup>64)</sup>

헬레나-시몬 마구스 쌍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레드 북』에 직접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다. 『레드 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필레몬의 정원에 찾아온 푸른 그림자(그리스도)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된다. 푸른 그림자는 필레몬을 시몬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장면은 필레몬이 이전에 시몬의 단계에 있다가 변모한 인물임을 드러내 준다.

‘숲속의 성’ 장면에서 헬렌 아니마와 그의 짝 시몬 마구스를 암시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융은 늪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고성에 도착한다. 그 고성의 주

62) Jung CG(1964b): 같은 책, p185.

63) 남성의 이런 태도는 카사노바와 돈 후안을 통해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희대의 호색한으로 알려진 이 두 사람은 가히 성적, 지성적, 탐미적 탐닉의 화신이라 할만하다. 카사노바는 문학에 심취해 늘 책에 빠져 있었으며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문에도 심취해 있었다. 그와 함께 최고의 바람둥이로 손꼽히는 돈 후안 역시 문학에 조예가 깊고, 음악과 미술 등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64) Jung CG(2009): 같은 책, p264.

인은 일생을 학문과 연구에 스스로를 몰아붙인 학자처럼 보이는 야윈 노인이다. 융은 처음에 이 노인을 진정한 학자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외로운 존재이며 영혼이 목마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다. 융은 그녀를 ‘죽음처럼 창백하고 호리호리한 소녀’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신비’에서 엘리야와 살로메로 보았던 것이 삶에서 늙은 학자와 같혀 지내는 그의 창백한 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65)</sup>

융의 이 말은 이 성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의 딸이 헬레나-시몬 쌍의 이미지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노인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야위었고 외로워 보인다. 그의 서재의 공기는 무겁다. 또한 그녀의 딸은 죽음처럼 창백하고 호리호리하다. 빈약하고 생명력 없는 심혼-심령의 쌍을 보는 것 같다. 융의 환상 내용이 『레드 북』의 다른 장면들에 비해 상당히 빈약해 보인다. 이 노인과 소녀의 쌍은 융의 그 당시 정신적 상황을 잘 대변하는 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심령의 모습은 생기 없고 허약한 노인 학자로 표상되고 있다. 융은 이 노인을 처음에는 진정한 학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외롭고 영혼이 목마른 자였다. 이 모습은 당시 융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융이 아직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본능의 질서와 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프로이드와 결별할 당시에 이미 프로이드와 별개로 자신의 독자적인 심리학 이론을 구축하고 있었을 정도로 이미 뛰어난 학자요 치료자였지만 심혼-심령의 영역과 ‘의식적으로’ 연결된 치료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융이 환상을 통해 노학자의 이미지로 객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과 그 노인과의 동일시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해 바로 자신이 ‘목마른 영혼의 학자’였다는 것을 그때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노인이 깨달음과 통찰력을 상징하는 엘리야나 필레몬 같은 심령의 모습으로 발달하여 나오지 못하고 빈약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소녀는 헬렌 아니마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소녀는 융의 미발달된 빈약한 감정기능을 표상한다. 폰 프란츠는 남성이 남성적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발달시키게 되면 감정의 측면은 빈약하게 된다고 한다. 로고스 즉 지성적인

65) 위의 책, pp261-263.

측면에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특정한 규범이나 관점을 고수하다 보면 감정은 서서히 시들어간다고 한다.<sup>66)</sup> 융은 20세기 초 외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지그프리트적인 시대 정신 속에서 발달한 남성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정신의학이 아직 과학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의학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냉철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늘 견지했어야 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형성된 융의 의식 속에서 감정 기능은 아직 빈약한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융의 헬렌 아니마는 비록 빈약한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많은 지성인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영혼이 없이 지성적 미학적 만족을 추구하는 초보적 수준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융과 노인의 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녀는 헬렌 아니마의 전형적인 양상을 뛰어넘는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 “당신은 신성에 대해, 소위 궁극적 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궁극적 진리를 진부한 것에서 찾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 “이 최고의 진리들은 비범할수록 인간과 거리가 더 멀게 되고 또 인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 의미 있거나 소중한 것을 덜 들려주게 됩니다. 오직 인간적인 것만이, 그리고 당신이 진부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이 당신이 추구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sup>67)</sup>

소녀는 융과 헤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진부한 현실도 구원자가 될 수 있지요. 고마워요, 친구여. 여기 살로메의 인사를 전해요”<sup>68)</sup>라고 말한다.

헬렌 아니마의 부정적인 힘의 지배하에 있는 남성이 추구하는 지성주의적, 탐미주의적 삶의 방향은 진부하고 평범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과 예술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도피하는 전형적인 태도이다.<sup>69)</sup>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자신을 다른 소위 평범한 사람들과는

66) Von Franz ML(199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la, Boston & London, p172.

67) Jung CG(2009): 같은 책, p262.

68) 위의 책, p263.

69) 폰 프란츠는 “지성주의나 탐미주의는 개인과 현실 사이에 절연층을 만드는 잘 알려진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런 태도는 직접적 경험을 방해하며, 고통을 직접 체험함을 통해 의식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다. Von Franz ML(1992): *The Golden Ass of Apuleius*, Shambhala, Boston & London, p39.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남성은 남들보다 탁월한 방식으로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한 방식으로 삶을 회피하고 있다.

융(1937)은 “남성은 지성의 능력(mind)을 통해 삶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지성의 능력을 통해 삶을 정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삶은 아니마를 통해 남성 안에서 살아 나온다.”<sup>70)</sup>라고 했다. 남성의 지성주의와 탐미주의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성은 자신의 정신적인 구상 활동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자유롭다. 지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날아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삶이라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있어서는 여느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낀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상당히 비참하게 무너진다.<sup>71)</sup>

지성적인 이해와 탐미주의는 둘 다 기만적이고 불안정한 자유로움과 우울감의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 상태는 감정이 개입하면 금방 무너져 내린다. 감정은 항상 개인이 현실과 상징적인 내용의 의미에 매여 있게 해준다. 그리고 탐미주의와 지성주의는 자신들을 해방해주지 못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부여해준다.<sup>72)</sup>

폰 프란츠는 학계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른 직업의 남성들보다 종종 더 나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교수로부터 학자의 페르소나를 벗겨내면 단지 한 아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삶을 로고스에 헌신했으며 아니마는 원초적 관능성, 정감,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정서로 퇴행했다”<sup>73)</sup>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탐미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름다움과 최고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태도는 일종의 탐미주의로 몰고 간다. 그것은 삶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대극의 합일 쌍이기 때문이다. 삶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추한 것이다. 양극단이 모두 삶의 현실에 속한다. 그래서 오직 아름다움과 탐미주의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그것

70) Jung CG(1988): 같은 책, p1172. 1937년 6월 23일 세미나.

71) Jung CG(1997): *Vis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1145-1146. 1933년 10월 25일 세미나.

72) Jung CG(1954): 같은 책, pp279-280.

73) Von Franz ML(1992): 같은 책, p109.

이 가장 고귀한 형태라 하더라도 일종의 교만, 자아팽창이며, 비현실적인 태도이다. 그런 태도는 남성의 미분화된 아니마가 특히 유혹해가는 방향이다. 영원한 아름다움은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항상 무시무시함과 공포에 의해 변화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은 개인이 구체적인 매일의 일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는 황홀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니마의 탐미주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sup>74)</sup>

직면해야 하는 진부하고 일상적인 삶을 회피하고 지성적, 탐미적 쾌락의 세계로 도피함을 통해 삶의 기쁨을 취하려는 남성의 태도는 헬렌 아니마의 부정적인 측면과 동일시된 전형적인 모습이다. 관계성의 기능이며 감정 기능인 아니마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진솔하게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발달한다. 융(1934)은 “대지와 현실에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에 더 위대한 용기, 더 위대한 덕과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만일 개인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에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할 것이고 따라서 초인이 나타나 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sup>75)</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소녀는 융이 질문했던 신성이 지극히 진부하고 평범한 삶의 현실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녀는 비록 창백하고 야윈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헬렌을 뛰어넘는 진리를 품고 있는 높은 단계의 헬렌 아니마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살로메의 인사를 전한다는 소녀의 마지막 말은 소녀와 살로메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소녀가 이브 아니마 다음 단계인 헬렌 아니마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은 소녀가 헬렌 아니마를 넘어서 성모 마리아 아니마(아니마의 제3단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융의 아니마가 이브-헬렌-성모 마리아의 양상을 한꺼번에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헬렌 아니마와 관련하여 이 당시 융의 정신적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융과 토니 볼프와의 연인 관계이다. 토

74) 위의 책, pp132-133.

75) Jung CG(1988): 같은 책, p84. 1934년 6월 6일 세미나.

니 볼프는 1910년 9월 20일 23세의 나이의 환자로서 융(35세)을 처음 만났다. 이후 융으로부터 분석치료를 받게 되었고 1912년 11월 융이 뉴욕 강의로부터 돌아왔을 때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융은 토니와의 분석을 종료한 이후에 그녀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sup>76)</sup>

융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가 1911년 8월 29일 프로이드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나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 종교와 철학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겸비한 놀라운 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sup>77)</sup> 융은 1912년 12월 자신의 꿈에서 비둘기가 작은 소녀로 변했다가 다시 비둘기로 돌아가는 장면을 해석하면서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이 여인에게 주어야 했다”<sup>78)</sup>고 『블랙 북』에 적고 있다. 또한 융은 1913년 11월 15일자 『블랙 북』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3년 전에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영혼은 내 혼인 생활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불안을 넘어서게 할 만큼 소중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sup>79)</sup>

1944년 3월 4일자 일기장에서 토니 볼프는 ‘31년간의 연인 관계와 34년간의 친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와 융과의 연인 관계가 1913년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sup>80)</sup> 이 시점은 융이 프로이드와 공식적으로 결별할 때와 맞물려 있다. 이 당시 융은 프로이드와 결별 후에 삶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다고 말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sup>81)</sup>

융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지닌 20대의 젊은 여인 토니 볼프는 융의 헬렌 아니마가 투사되기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융(1946)은 “헬렌 아니마 단계에 있는 남성은 낭만적이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한 개인으로 소중하게 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적인 에로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sup>82)</sup>고 했다. 융이 『레드 북』에서 묘사하고 있는 무의식 내용의 엄청난고도 격렬한 분출은 토니 볼프와의 사랑의 감정이 촉발하는 역동적인 정

76) Jung CG(2020): 같은 책, p29.

77) 위의 책, p28.

78) 위의 책, p29.

79) 위의 책, p27.

80) 위의 책, p30.

81) Jung CG(1989a): 같은 책, p170.

82) Jung CG(1954): 같은 책, p174.

동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은 “사랑의 정욕(concupiscentia)적인 측면은 가장 확실하게 무의식을 빛으로 끌어내는 역동성이다”<sup>83)</sup>라고 했다. 폰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의 신 에로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위대한 고문자이며 동시에 영혼을 정화하는 자이다. 열정과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은 개성화로 나아가는 강한 추진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개성화 과정도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사랑은 우리를 모든 것에 대담하게 만들며, 그런 체험이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한다.<sup>84)</sup>

토니 볼프와의 관계는 융이 이브와 헬렌 아니마를 깊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브와 헬렌 아니마의 통합은 결코 지성적인 이해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두 아니마의 통합은 먼저 육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불편하고 성가신 느낌과 감정들, 즉 심리육체적 정동(psychosomatic emotions)을 의식적으로 통합함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융은 이 통합의 과정을 ‘끔찍한 벌레’를 받아들인 것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련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융이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 일어나는 정동들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 3. 바우키스-필레몬

『레드 북』의 제3권 <정밀 검증>의 마지막 장에서 필레몬은 자신의 정원에 찾아온 푸른색 그림자 인물(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몬과 헬레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신들을 접대한 집 주인이지요. 우리는 그 끔찍한 벌레를 환대했지요.<sup>85)</sup>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레드 북』 제2권 21장 ‘마법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부부는 인간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주피터와 머큐리를 맞아들여 융숭하게 대접을 했던 집 주인 부부이다. 그 덕분에 이들은 신들의 벌을 피하여 살아남을

83) Jung CG(1970): 같은 책, p86.

84) Von Franz ML(1992): 같은 책, p82.

85) Jung CG(2009): 같은 책, p359. 2009년 출판된 『레드 북』의 각주에는 이 끔찍한 벌레가 ‘사탄’을 의미한다고 적혀있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들은 이들의 초라한 오두막을 신전으로 바꾸어 주었고,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결국 신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었다.<sup>86)</sup>

바우키스는 남성의 아니마 발전 단계에서 제3단계인 성모 마리아에 해당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성모 마리아 아니마는 사랑(에로스)을 영적인 헌신의 극치에까지 끌어 올린다”<sup>87)</sup>고 했다. 즉 남성이 자신의 리비도를 주로 영성적인 번성을 이룩하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가 신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단계의 아니마가 이제 아니마 기분을 멈추고 심령들의 세계, 즉 집단적 무의식으로 안내하고 중개하는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딩저는 “자아가 아니마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니마와 의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아니마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물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수로가 된다”<sup>88)</sup>고 했다.

이제 남성이 바우키스-필레몬 쌍으로 표상되는 아니마 발전의 제3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전까지 지배적이었던 아니마 기분 현상이 중단되고 아니마가 지니고 있던 마나(manā; 신성력)를 넘겨받으면서 심령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된다. 융은 “자아가 아니마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힘을 자신에게 끌어 온다면 자아는 바로 마나-인격이 된다”<sup>89)</sup>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아와 원형상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며, 그로 인한 자아 팽창(inflation)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sup>90)</sup>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동일시로부터 자신을 분화시켜야 하는 임무와 직면하게 된다. 이 원형상을 객관화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해야만 진정한 마나-인격이 된다.<sup>91)</sup>

마나-인격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난 남성은 이제 필레몬으로 상징된 마나 인격을 갖추게 되고 헬렌 아니마는 바우키스로 변하여 집단적 무의식에서의 인도자라는 아니마 본래 역할을 되찾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한 남성은 바우키스-필레몬처럼 심령들을 섬길 수 있는 사제와 같은 존재가 된다.

86) 위의 책, p312.

87) Jung CG(1964b): 같은 책, p185.

88) Edinger EF(1996a): *The Aion Lectures*, Inner City Books, Toronto, p32.

89) Jung CG(1966): 같은 책, p233.

90) 같은 곳.

91) “융의 마나-인격과의 조우에 대한 묘사, 즉 마나-인격과의 동일시와 그 후에 이어지는 탈동일시에 대한 묘사는 『새로운 책』에서 융이 필레몬과 조우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Jung CG(2009): 같은 책, p218.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심령들의 세계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령들의 세계는 결코 지성적인 연구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 세계에 관한 많은 책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혹은 비범한 지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sup>92)</sup> 융이 그랬던 것처럼 심령들의 발현을 알아보고 그 세력을 의식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다. 융(1954)은 심령들의 영역을 지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집단적 무의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심령들의 접근에 따르는 위험성과 그들이 부과하는 과업과 의무를 감당해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삶과 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더 많은 외로움을 감내하는 것이라 했다.<sup>93)</sup>

바우키스 아니마는 남성이 심령들의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영성적인 변성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기능을 한다. 에딘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브가 생물학적인 모성의 원리였다면, 여기서 성모 마리아 단계의 목적은 영성적인 변성이다”<sup>94)</sup>라고 말한다. 영성적인 변성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개성에 따라 저마다 다른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성모 마리아 아니마가 어떻게 남성을 영성적인 변성으로 이끌어 가는지 우리는 융의 삶과 사상을 통해 한 가지 훌륭한 예를 볼 수 있다.

바우키스의 짝으로 나타나는 필레몬은 마리아 아니마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심리 안에서 형성되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타난 필레몬은 당시 융이 극심하게 겪었던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이라는 특정한 심리상황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작용으로 나타난 노현자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융(1934)은 노현자 원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현자의 원형이 나타나면 그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방향 상실, 무의식성, 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현자 혹은 예언자가 인류가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낡은 삶의 방향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필요한 고난의 시

92) 융(1930)은 지성(intellect)이란 먹잇감을 갈가리 찢어놓는 맹금류와 같다면서, 마음의 객체적인 작용을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지성적 사고작용을 희생시키고 원시적인 마음의 충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Jung CG(1997): 같은 책, p96.

93) Jung CG(1975): 같은 책, p172. 1954년 4월 10일자 서신.

94) Edinger EF(1995): *The Mystery Lectures*, Inner City Books, Toronto, p168.

대에 나타나는 것이다.<sup>95)</sup>

융은 필레몬에 관해서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필레몬은 탁월한 통찰을 의미했다. 나는 당시 나의 무의식적인 환상의 산물들과 뒤엉킴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구루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할 수가 없었다. 이 과제를 맡은 것이 필레몬이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싫든 좋든 간에 그를 나의 스승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깨우치는 많은 생각을 전달하였다.<sup>96)</sup>

이 당시 필레몬이 융의 심리 안에서 완숙된 형태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융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레드 북』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융이 겪고 있는 무의식적인 대혼돈(massa confusa)이 결국에는 신의 대극 융합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통찰에 이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우키스-필레몬이 끔찍한 벌레를 환대했다는 것은 융의 무의식 속에서 바우키스-필레몬이 심리적 기능으로 자라나오면서 신의 대극 중에서 암흑의 측면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신의 대극성의 문제

### 1. 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레드 북』의 서문에서 융은 “신의 이미지엔 그림자가 있다. 궁극의 의미는 실체이며 그림자를 드리운다. (...) 신의 이미지는 그 자체만큼이나 증대한 그림자를 드리운다<sup>97)</sup>”라고 말하면서 신의 어두운 측면을 예시하고 있다. 악과 어둠의 심리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융의 심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융이 말하는 ‘신의 그림자’는 서양의 신학에서 말하는 악마(Devil) 혹은 사탄(Satan)을 의미한다. 악마와 사탄은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에서 배척되어왔던

95) Jung CG(1988): 같은 책, p24. 1934년 5월 9일 세미나.

96) Jung CG(1989a): 같은 책, p184.

97) Jung CG(2009): 같은 책, p230.

신의 어두운 대극을 표현하는 형이상학적 명칭이다.

융(1954)에 의하면 고대 서구 문명이나 동양 문화에서는 신의 대극성은 종종 동일한 신상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의 이런 역설적인 특성은 조금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sup>98)</sup> 하지만 사물과 관념을 명백하게 분류하는 특성이 강한 서양인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이 곧 악마, 악마가 곧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sup>99)</sup> 서양인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어떤 틀에 집어넣어서 올바르다고 보일 때까지 조작(操作)해야만 성에 차는 특성이 있다.<sup>100)</sup>

그리하여 “고대 유대 종교의 유일신 야훼는 절대적으로 선한 하느님이 되었고, 반면에 사악한 모든 것은 악마로 통합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서구인들 안에서 발달한 감정 가치들이 신성의 특성을 반반으로 쪼개놓는 선택을 하도록 강제한 것처럼 보인다. (...) 이 이상한 발달은 마니교(Manicheism)의 이원론을 두려워한 그리스도교가 유일신론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sup>101)</sup>

『레드 북』 제2권 1장에 등장하는 ‘붉은 존재’는 융의 의식에 다가오고 있는 신의 어두운 측면인 사탄의 초기 단계 이미지이다. 융과 붉은 존재 사이의 다음 대화는 붉은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융: “신 앞에서 나는 언제나 진지하고 나 자신에게 최대한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붉은 존재: “삶은 그 어떤 진지함도 요구하지 않아. 반대로, 사는 내내 춤을 추는 게 더 나아.”

융: “아마도 춤추기라고 칭할 수 있는 신 앞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어. 그러나 난 이 기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붉은 존재: “형제여,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 내가 기쁨이야!”<sup>102)</sup>

98) Jung CG(1969a):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02.

99) Jung CG(1988): 같은 책, pp845-846. 1936년 2월 19일 세미나.

100) 위의 책, p883. 1936년 3월 4일 세미나.

101) Jung CG(1969a): 같은 책, p103.

102) Jung CG(2009): 같은 책, p260.

붉은 존재는 용에게 ‘진지함’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 하고 춤추는 행위의 신적인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의식의 명징성과 질서로 대변되는 아폴로적인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디오니소스적인 삶의 원리를 가리킨다. 디오니소스는 와인, 식물, 쾌락, 축제, 광기와 광란의 신이다. 에딘저는 디오니소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디오니소스가 몰고 오는 것은 거칠고, 천연덕스럽고, 영감으로 충만한 행위이다. 아폴로가 표준과 평균을 의미한다면 디오니소스는 과잉과 과잉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징한다.<sup>103)</sup> 그는 자아의 경계와 경직성을 허무는 초개인적인 정신의 역동성이며 인격을 좋게도 나쁘게도 변화시킨다. 그는 창조성 혹은 광기를 가져다 주는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천연덕스러움과 영감의 화신이다.<sup>104)</sup>

디오니소스는 발달한 이성과 합리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럽의 정신 문화적 풍토와 칼빈주의적인(Calvinistic) 엄격한 윤리도덕이 지배하는 종교적 배경에서 자라난 용에게는 사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원리이다. 그것은 용이 그때까지 자신의 삶에서 고려해보지 않았던 삶의 관점이었다. 용은 『레드 북』 제2권 1장에서 악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악마는 적으로서 당신 자신의 다른 관점이다. 악마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이 당신이 그의 편에 선다거나 당신 자신이 악마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이해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그 이해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게 된다.<sup>105)</sup>

다른 관점이란 그동안 용이 무가치하게 생각했고 배제해왔던 삶의 측면들이다. 자아가 소위 행복한 삶을 지향하면서 일방적으로 추구해왔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충만한 가능성이 그 다른 관점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시편 118, 22)라는 성경 구절처럼 자아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부했던 그 다른 관점이 신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붉은 존재가 가르쳐주고 있다.

103) Edinger EF(1994): 같은 책, p144.

104) Edinger EF(1990b): *The Living Psyche*, Chiron, Wilmette, p185.

105) Jung CG(2009): 같은 책, p260.

여기서 붉은 존재는 사탄의 전조적인 이미지로서 후에 정립된 융 심리학의 개념 중에서 ‘그림자’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융(1936)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인의 아름다움이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왔다.”(니체) 내가 ‘자기’(the Self)라는 용어로 표현한 니체의 초인에 대한 관념은 처음에는 그림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것은 버려진 것을 통해 나타난다. 가장 고귀한 돌인 ‘철인의 돌’은 동시에 집 짓는 자들이 처음에는 내버린 돌이다. 또한 철인의 돌이 만들어지는 혹은 철인의 돌이 발견되는 물질은 길가에 버려져 발길에 짓밟히거나 혹은 뚝 무더기에 버려진 것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 가장 강하게 억압해 두었거나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 그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6)</sup>

융은 계속해서 『레드 북』 제2권 16장 ‘세 번째 밤’에서 악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관점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방향에 관한 구별을 제외한 모든 구분을 지워버리는 것이 당신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오랜 저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최선의 평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한 다음에 선만을 고무하고 자신이 저질렀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악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의 뿌리는 깊은 곳의 시커먼 영양분을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당신의 나무는 병들고 시들게 되었다. 당신의 생명은 어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어두운 것을 악으로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sup>107)</sup>

융(1940)은 악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식을 통해 악마가 개성화 과정의 동인임을 말한다.

악마는 개성화의 준비 단계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만 신성한 사위성 즉 전체성을 지향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아직은 여전히 어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빛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악마의 활동은 여전히 위험하고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씨가 싹을 틔우는 검은 대지

106) Jung CG(1988): 같은 책, p953. 1936년 5월 27일 세미나.

107) Jung CG(2009): 같은 책, p301.

와 같은 것이다.<sup>108)</sup>

에딩저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어두운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격, 자기(the Self)를 상징한다고 보았다.<sup>109)</sup>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성취에로 나아가는 모험을 시작한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학작품의 낭만적인 묘사와는 달리 실제 삶의 개성화 과정에서는 무의식의 새로운 내용들이 의식을 집어삼키는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의식을 어렵게 한다고 융(1940)은 말한다.<sup>110)</sup>

다음 구절은 융이 그 끔찍한 별레, 사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사기꾼들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사기꾼인 필레몬이여, 나는 당신을 알아보았어! 당신은 나를 속였어. 당신은 나의 순수한 영혼에 그 끔찍한 별레를 잉태시켰어. 이 빌어먹을 허풍선이 필레몬, 당신은 나를 위해 신비들을 흉내 내고, 별들의 망토로 나를 덮어주고, 나와 함께 바보 그리스도의 코미디를 하고, 오딘처럼 나를 익살스럽게 나무에 매달고, 나로 하여금 살로메를 호릴 주문을 고안하도록 했어. 그 사이에 당신은 나의 영혼에게 땅이 토해낸 그 별레를 잉태시켰어. 사기에 사기, 사기의 연속이었어! 가증스러운 악마의 농간이었어! (...) 매춘부 같은 나의 심혼이여, 너는 이 사생아를 가졌어! 나를 망신 시켰어! 어처구니없게도, 내가 적(敵)그리스도의 아버지라니!<sup>111)</sup>

이 구절은 『레드 북』 제2권의 후반부에 나타난다. 융이 필레몬을 비난하면서 쏟아내는 낯두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레드 북』 제1권~2권을 통해 융이 보고 겪었던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무의식 환상들의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듯하다. 독자에게 그동안 자신의 무의식 환상에서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과 상황들이 마치 필레몬이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화면구성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필레몬의 사기극에 대한 폭로라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무의식 과정들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을 요약하는 대목으로 보

108) Jung CG(2008): 같은 책, p372.

109) Edinger EF(1990a): Goethe's Faust, Inner City Books, Toronto, p32.

110) Jung CG(2008): 같은 책, p373.

111) Jung CG(2009): 같은 책, p327.

인다. 그 의식적인 자각 자체가 융의 의식 안에 필레몬이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레몬에 대한 강한 반감은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방어법적 표현이다.

## 2. 경험적인 측면에서 악을 수용하는 것의 의미

융은 “적(敵)그리스도의 출현은 단지 선지자의 예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심리적 법칙이다”<sup>112)</sup>라고 했다. 벌레 같은 존재인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어떤 체험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 인용한 『레드 북』의 두 구절은 『레드 북』 전반에 걸친 융의 체험을 요약하는 에센스이며 또한 융 심리학 전체를 떠받치는 토대이다. 융은 『레드 북』의 제3권인 <정밀 검증>의 두 구절을 통해 자신이 이 당시에 겪었던 모든 것이 하느님 체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느님 체험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사로잡는’ 특성과 ‘병으로서 다가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먼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사로잡는’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한다. 고대인들이나 이런저런 권위자들의 의견이 그래서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런 형태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일이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속임수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을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 경험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는 점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한다. (...) 어떤 통찰도, 어떤 반대도 이 경험의 힘을 능가할 만큼 강하지 않다. (...) 나는 그 경험 자체의 확고함에 의해서 하느님을 알아본다. 나는 그 경험에 의해 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sup>113)</sup>

융이 겪었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인간을 여러 종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의 형태로 사로잡는 걱정을 말한다. 융(1959)

112) Jung CG(1969b): 같은 책, p43.

113) Jung CG(2009): 같은 책, p338.

은 개인을 사로잡는 아주 강한 감정(gripping emotionality)을 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누미노제(numinosity; 신성한 힘)의 발현으로 보았다.<sup>114)</sup> 『레드 북』에서는 ‘신성한 광기’(divine madness)로 표현하고 있다.<sup>115)</sup> 그것은 신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동(emotion)이 의식에 맹공을 가하면 개인은 불가피하게도 무의식에 의해 휩쓸려 버린다.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는 언제나 집단적 무의식이 일으키는 격동이다.<sup>116)</sup> 그것은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정련시키는’(이샤야 48,10) 신의 의지 그 자체, 즉 인간을 필요로 하는 야훼의 의지이다.<sup>117)</sup>

융(1937)은 격정적인 감정의 불길에 휩싸여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이 자아가 영적이고 불멸의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때라고 말한다.<sup>118)</sup>

불의 고통을 통해 인간은 영광스러운 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황금으로 변하게 된다. 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불을 견뎌야 한다. 열정의 불에 의해 변화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늘 도망 다니는 사람이며, 단지 삶을 회피하고 있다.<sup>119)</sup> 그런 엄청난 불에 사로잡히는 체험 없이는 심령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령의 현상적인 체험은 오직 거의 완전한 파괴의 순간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sup>120)</sup>

그리고 이런 격렬한 누미노제의 체험은 자아의식에는 사탄과 같은 힘으로 먼저 다가온다고 말한다.<sup>121)</sup>

114) Jung CG(1975): 같은 책, p517. 강한 감정(emotion 정동, affect 정감)은 어떤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개인을 사로잡아서 움짱달짝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것은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으며 그 어떤 상태의 사로잡는 강한 감정이 될 수 있다.

115) Jung CG(2009): 같은 책, p238.

116) Jung CG(1997): 같은 책, p1073. 1933년 6월 21일 세미나.

117) Jung CG(1975): 같은 책, p237. 1955년 3월 28일자 서신.

118) Jung CG(2008): 같은 책, p102.

119) 위의 책, p203. 1939년 세미나.

120) Jung CG(1997): 같은 책, p1044. 1933년 6월 7일 세미나.

121) 융(1932)은 사탄적인 힘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신학자 오토(Otto)가 말했던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그것은 신성한 힘을 의미하는 *numinosum*,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힘을 의미하는 *tremendum*, 그리고 매혹을 느끼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fascinatum*이다. 이것은 강렬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매혹적인 힘을 의미한다. 위의 책, p846.

인간에게 도달하기 위해 하느님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의 자비와 정의만을 끝도 없이 찬양하면서 결국 그의 등장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도달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오직 사탄에 의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사탄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sup>122)</sup>

용에 의하면, 신이 개인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는 종종 적대적인 공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무의식적인 역동성이 지닌 격렬한 힘을 표현하는 상징이다.<sup>123)</sup> 용(1953)은 ‘악마의 다가옴’(adventus diaboli)은 미래에 있을 신의 대극성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예비단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거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sup>124)</sup>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껴지거나 체험하는 어떤 것이라도 ‘신적인’ 혹은 ‘악령적인’ 것이라 불려왔다. 하느님에 대한 이 심리학적 정의는 그리스도교의 교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직 종종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적으로 느껴지는 절대적 타자에 대한 체험을 묘사한 것뿐이다. 그 타자는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역사 내에서의 ‘하느님 체험’과 일치한다. 신의 작용은 항상 압도적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일종의 정복하는 힘이다.<sup>125)</sup> 그러므로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 신이 있다.<sup>126)</sup>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조주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압도적인 충동을 지각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했다. 그것은 암흑의 지배이며 이 또한 하느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시련으로 느껴진다.<sup>127)</sup>

여기서 용은 암흑의 신 역시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용(1959)이 말한 다

122) Jung CG(1975): 같은 책, p34. 1952년 1월 5일자 서신.

123) Jung CG(1956): 같은 책, p338.

124) Jung CG(1975): 같은 책, p136. 1953년 11월 24일자 서신.

125) 위의 책, p272. 1955년 9월 21일자 서신.

126) Jung CG(1988): 같은 책, p1138. 1937년 6월 9일 세미나.

127) Jung CG(1975): 같은 책, p134.

음 구절은 이 암흑의 신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하느님은 내 의식의 의지를 제압하고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앗아가는 내 정신 체제 속의 모든 압도적인 정서들에 붙여진 적절한 이름이다. 이것은 내가 계획하는 삶의 경로를 격렬하고도 무모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 나의 주관적인 견해, 계획, 의도를 뒤집어엎고는 내 삶의 경로를 보다 낮게 혹은 더욱 못한 방향으로 바꿔 버리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다.<sup>128)</sup>

에딩저는 신이 악마와 같은 기세로 강제로 인간의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이유는, 무의식이 의식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초기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으로부터의 요청은 점점 집요하게 되고 격렬하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한다.<sup>129)</sup> 융(1940)은 신이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의식의 의도에 비해 의식의 태도가 항상 뒤쳐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식이 늦기 때문에 무의식으로부터 무언가 격렬한 것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태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무의식이 일으키는 긴장들을 수용하고 통합할 것이고 무의식은 그렇게 격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sup>130)</sup>

결국 융이 겪었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사로잡는’ 무의식의 악마와 같은 기세는 자아의식에 경종을 울려서 무의식의 의도대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격렬함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의 핵심을 꿰뚫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그 활동에 복종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그 격렬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효과가 그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나 혹은 알기 위해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격렬한 감정의 맹목성을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그 감정을 지식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sup>131)</sup>

128) 위의 책, p525. 1959년 12월 5일자 서신.

129) Edinger EF(1999): *Archetype of the Apocalypse*, Open Court, Chicago & La Salle, p36.

130) Jung CG(2008): 같은 책, pp413-414.

131) Jung CG(1969c): 같은 책, p366.

그런데 융은 개인을 사로잡는 걱정이 자아의식에 유의미한 신의 누미노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보는 인간의 의식성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성의 여부에 따라 강한 감정은 단지 개인을 시달리게 만드는 정서적 에너지의 엄습으로 그칠 수도 있고, 신이 인간의 의식에 육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성을 맹목적으로 다가오는 신의 본성을 변모시키는 동인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융(1933)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련의 걱정적인 정서들이 필연적으로 황금을 생산해낸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단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이 평생 동안 그런 식으로만 불타오르다가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타오르는 걱정이 '마법의 원'(만달라) 안에서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법의 원이란 의식성의 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성이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겪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파괴적인 불같은 정서의 영향에 맞서서 마치 마법의 원 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단지 정신적 광분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입문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법의 원 안에 있는 것이며 이 광분 상태는 분명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sup>132)</sup>

다음으로 융은 자신의 하느님 체험이 '병으로서 다가오는'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착각과 감각적 기만에 압도당한 그런 병든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나는 병을 앓으면서 하느님을 경험한다. 살아 있는 하느님은 질병처럼 우리의 이성을 괴롭힌다. 하느님은 영혼을 취하게 만든다. 하느님은 인간을 험기증 나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하느님은 우리의 병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가장 무거운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력해지고, 사로잡히고, 분열되고, 병들고, 대단히 강한 독에 마비되지만,

132) Jung CG(1997): 같은 책, p1056. 1933년 6월 14일 세미나.

최고의 건강에 취하게 된다.<sup>133)</sup>

융이 무의식과의 대면에서 겪었던 고통은 노이로제의 작용 기전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자아의식을 대상(代償)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무의식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노이로제가 작용하는 원리적인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융은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의 지배적인 태도는 위축되고, 무의식 속에서는 의식의 태도에 의해 가장 심하게 억압되었던 원형들이 휘젓고 올라온다”<sup>134)</sup>고 했다. 융이 뛰어난 학식과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레드 북』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근사하고 경이로운 판타지 문학작품처럼 펼쳐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노이로제 증상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다.

융(1932)은 노이로제를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sup>135)</sup>이라 했다. 노이로제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는 원형적 리듬과 연결해서 살아라!”는 영혼의 간절한 절규이다. 원형적 리듬이란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우주를 운행하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홀리스(Hollis)는 “우주를 운행하는 동일한 에너지가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sup>136)</sup>고 했다.

하지만 의식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고통의 의미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실패한 폭로’로 끝나는 것이다.<sup>137)</sup>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실패한 폭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융은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증상을 앓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치료적 함의를 발견해냈다. 융(1935)은 “노이로제의 길을 따라가라. 노이로제는 당신이 여태껏 생산해낸 것 중에서 최상의 것,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sup>138)</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겪었던 증상은 샤먼이나 무당 후보자가 신령을 맞아들이기 위해 입문식의 과정에서 겪는 신병이나 무병과도 일맥상통한다. 샤먼이나 무당은 “어떤 형태의 정신적 붕괴를 체험했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과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133) Jung CG(2009): 같은 책, p338.

134) Jung CG(1970): 같은 책, p359.

135) Jung CG(1969c): 같은 책, pp330-331.

136) Hollis J(1995): *Tracking the Gods*, Inner City Books, Toronto, p148.

137) Jung CG(1997): 같은 책, p783.

138) Jung CG(1988): 같은 책, p707.

다.”<sup>139)</sup> 『레드 북』 서문에는 “융은 현실 세계와 신령의 세계 사이의 전쟁에 휘말려서 거의 산산이 부서지다시피 했지만, 가까스로 땅 위에 버티고 서있었으며 그로 인해 현실 세계에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 내었다.”<sup>140)</sup>고 말한다.

이에 대해 폰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샤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입문식에서 겪은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신령들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와 사력을 다해 씨름하면서 무의식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신령들과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sup>141)</sup> 또한 융(1938)은 “원형의 영역과 통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룰 수 있다”<sup>142)</sup>고 했다. 문(Moon)은 샤먼의 입문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문식의 과정을 통해 샤먼은 인간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신령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심리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자아가 파괴되거나 분열되지 않은 채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통 때에는 자아를 형성하는 경계들이 있어서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하지만 노이로제나 정신분열 상태처럼 자아의식이 무의식에 의해 범람할 때는 개인의 경계는 무너지고 방향성은 상실된다. 그러나 샤먼은 자아의 경계를 전혀 손상당하지 않은 채로 무의식으로 들어갔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sup>143)</sup>

융은 어둠의 신에 대한 체험을 통해 샤먼과 유사한 일종의 입문식을 치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력해지고, 사로잡히고, 분열되고, 병들고, 대단히 강한 독에 마비되지만, 최고의 건강에 취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노이로제 환자들은 융이 여기서 열거하는 동일한 증상들을 겪지만 ‘최고의 건강에 취하게 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다.

139) Moon B(1997): “Shaman’s Mask”, *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Shambhala, Boston & London, p409.

140) Jung CG(2009): 같은 책, p213.

141) Von Franz ML(1998): 같은 책, p66.

142) Jung CG(2008): 같은 책, p150.

143) Moon B(1997): 같은 책, p409.

결국 융은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 체험이란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압도적 충동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아-의식 영역에 초래하는 고통과 혼란의 의미를 깨닫고 통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온갖 번뇌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심리적 충동과 정동을 개인이 의식성을 견지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국에는 신성에 대한 체험이 된다고 본 것이다. 융의 이 관점은 인간 내면의 부정적인 충동과 감정이 황금으로 바뀔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재료임을 가르쳐주는 연금술적 비법을 제공해 준다.

### 3. 누미노제가 지니고 있는 목적의미

융은 『레드 북』의 〈정밀 검증〉 1장에서 신의 누미노제가 일으키는 압도적 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나는 너에게서 네가 자랑으로 여기는 내용물을 모두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너는 내용물을 다 쏟아낸 그릇처럼 텅 빌 거야. 네가 내세울 건 바로 그 공허와 비참이야. 이제 너는 생명의 그릇이 되어야 해. 그러니 너의 우상들을 모두 죽이도록 해.<sup>144)</sup>

융이 사탄이 초래한 것처럼 느껴졌던 완전한 암흑 속에서 겪었던 공허와 비참함이 자신을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이어서 융은 무의식의 사탄적인 영향력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너의 육체는, 너의 살아있는 육체는 너와 함께 있어, 나의 소중한 이여, 깨달음을 주는 생각은 육체로부터 나와. (...) 그것은 한 마리 벌레처럼, 한 마리 뱀처럼 기어 다니고 있어.<sup>145)</sup> 벌레들과 땅을 기어 다니는 생명체들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줘. 그리고 나에게 그 정신들의 어둠을 열어 줘!<sup>146)</sup>

융이 육체를 죄악시하고 부정하는 유럽 그리스도교 영성의 일방성에서 깨어나서 육체적 측면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는 장면이다. 융(1931)은 유럽인들의 윤리는 육체의 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sup>147)</sup> 따라서 무의식은 고정적으로 지

144) Jung CG(2009): 같은 책, p334.

145) 위의 책, p339.

146) 위의 책, p340.

147) Jung CG(1997): 같은 책, pp192-193. 1931년 2월 4일 세미나.

하계적인 사실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했다.<sup>148)</sup> 융이 말하고 있는 육체와 땅은 무의식의 육체적 측면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융(1931)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땅은 우리 마음의 물질적인 영역인 육체를 의미한다. 그 영역은 정신(psyche)이 심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육체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땅의 마음(earth-mind), 혹은 정신(psyche)은 항상 육체와 어떤 관련이 있다. 따라서 땅은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sup>149)</sup>고 했다. 또한 “정신은 내면으로부터 바라본 육체의 생명력이며, 육체는 정신의 생명력이 외현화된 것이다. 둘은 하나이다.”<sup>150)</sup>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무의식이 물질적인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그것은 육체가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193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상(images)의 내용물들이 의식 안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땅 속에 묻혀 있다. 땅이란 곧 육체를 의미한다. (...) 특정한 신화적 환상들이 걸보기에는 생리학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형성한다. 말하자면 근육, 심장, 호흡 등과 같이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증상 속에는 신경증적인 정감(neurotic affection)이 감춰져 있다. 이런 생리학적인 증상들은 가장 놀라운 신화적 관념들의 부분적인 표현일 수 있다.<sup>151)</sup>

여기서 신화적 관념들이란 집단적 무의식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archetypes)을 말한다. 융(1949)에 의하면 원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자기 본성의 기본 계획(ground plan)이다. 인간이 타고나는 본능의 형식 혹은 행동 유형이다.<sup>152)</sup> 이 기본 계획이 개인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 나오지 못하고 좌초될 때 신화적 관념을 핵으

148) 위의 책, p192.

149) 위의 책, p195.

150) Jung CG(1964a): 같은 책, p94. 융(1926)은 정신과 육체의 분리는 의식적인 분별을 위한 목적으로 이성이 고안해낸 것이며, 하나요 동일한 사실을 지성적인 필요성에 의해 분리한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특성을 부적합하게 부여한다고 했다. Jung CG(1960): 같은 책, p326.

151) Jung CG(1997): 같은 책, p1010. 1933년 5월 24일 세미나.

152) Jung CG(1961): “The Significance of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Freud and Psycho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315.

로 하는 신경증적인 정감을 형성하게 된다. 좌절된 신화적 관념이 자신을 핵으로 하는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하여 자기 존재를 자아의식에 알려오는 것이다. 융은 그 신화적 정감이 생리학적 증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육체는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융(1935)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분명 몸 안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내가 늘 언급했던 집단적 무의식이 편재한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 집단적 무의식은 편재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어디에서나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위치 해있다. 육체의 교감신경계는 당신이 집단적 무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기관이다.<sup>153)</sup>

그래서 융(1932)은 “장차 다가올 의식성의 시작은 교감 신경계 안에 존재한다. 교감 신경계는 의식성의 원천이다”<sup>154)</sup>라고 했다. 또한 “육체로 돌아가라, 육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장 위대한 지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sup>155)</sup>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별레는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본능적인 생명 에너지, ‘가장 위대한 지성’의 출현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융(1929)은 별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별레는 뇌가 없는 가장 원시적 형태의 신경조직인 교감신경계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별레는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다. 즉 완전히 전의식적인 가장 단순한 생명의 형태, 가장 깊은 층을 의미한다. 별레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생명 형태가 올라오는 것이다.<sup>156)</sup>

이 본능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동물적 충동이 아니라 일종의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하자면 무의식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본능적인 지성’이다. 그래서 융(1940)은 “별레는 흙을 먹고 흙을 생명으로, 운동성으로 바꿔 놓는다. 별

153) Jung CG(1988): 같은 책, p751. 1935년 12월 15일 세미나.

154) Jung CG(1997): 같은 책, p783. 1932년 6월 29일 세미나.

155) Jung CG(1988): 같은 책, p370. 1935년 2월 6일 세미나.

156) Jung CG(1984): *Seminar on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34. 1929년 5월 29일 세미나.

레는 물질을 영혼으로 변환시킨다”<sup>157)</sup>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므로 “벌레로 상징되는 교감신경계는 ‘무의식의 눈’으로 보는 정신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눈이나 귀가 인식기관인 것처럼 교감신경계 역시 인식기관이다. 눈의 보는 능력이 뇌와 연결된 것처럼 교감신경계의 작용 양태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sup>158)</sup> 따라서 벌레는 무의식의 눈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본능적인 지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하지만 벌레라는 형태가 말해주듯이 아직은 원시적이고 무의식적이어서 분화가 필요한 정신적 실재이다. 의식적인 지성은 이런 무의식적 지성의 꿈틀거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심리치료를 위해 오는 사람들의 꿈에서 혹은 적극적 명상 작업에서 뱀, 벌레, 곤충 등과 같은 이미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몸서리치게 놀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이 그만큼 자신의 무의식의 본능적인 에너지와 불화 상태에 있으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벌레는 정신적 삶(psychic life)<sup>159)</sup>의 시작, 정신이 새롭게 열림을 상징한다. 그 벌레가 처음에는 아무리 파괴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 생명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수여자가 될 것이다. 결국 벌레는 보다 높은 의식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의식성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보다 높은 의식성은 훨씬 큰 책임감, 두려움, 성가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sup>160)</sup> 그래서 융이 이 무의식의 본능적 생명 에너지를 ‘꿈찍한 벌레’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융이 그것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차리기는 시작했으나 아직은 의식의 분화된 기능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융은 『레드 북』에서 이 벌레를 받아들이기 위해 치러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157) Jung CG(2008): 같은 책, p347. 1940년 1월 30일 세미나.

158) Jung CG(1984): 같은 책, p236. 1929년 5월 29일 세미나.

159) ‘정신’으로 번역되는 융 심리학의 용어 ‘psyche’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모든 심리 과정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육체의 대당 개념으로서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신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삶’이란 의식적인 심리 과정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본능적인 지성을 겸비한 삶을 가리킨다.

160) Jung CG(1984): 같은 책, p239. 벌레는 구약 성경의 에덴동산 신화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출현한 뱀과 유사한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야훼가 에덴동산에 보낸 뱀은 에덴의 평화를 깨트렸지만, 지혜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 먹도록 아담과 이브를 이끌었다. 여기서 뱀은 낙원의 평화를 깨트리는 명백한 악으로 보인다.

말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인간 동물들 앞에 던진다. 오, 더없이 비겁한 고통! 나는 나의 미덕을, 나의 최고의 능력을 찢어야 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인간 동물의 측면에선 여전히 가시들이기 때문이야. 최선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고 찢어내는 거야.<sup>161)</sup>

용이 무의식의 본능적 지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일방적인 의식적 지성을 포기해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성적 사고작용을 의식의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의 희생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용은 ‘생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달한 의식의 기능을 기꺼이 포기하려 한다. 벌레가 가져다주는 구원적인 의미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무의식이 초래한 사탄적인 영향력 안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리스도적인 영향력을 보기 시작한다.

결국 필레몬의 정원에 신의 대극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사탄이라는 위대한 두 심령이 찾아온다. 그리스도와 사탄은 집단적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개별 심령들이기 보다는 빛, 즉 양(陽)의 원리에 속하는 모든 심령을 아우르는 신의 한 대극과 어둠, 즉 음(陰)의 원리에 속하는 모든 심령을 아우르는 신의 다른 한 대극을 의미한다.

#### 4. 신의 대극성 자각

『레드 북』의 제3권 <정밀 검증>의 마지막 장에서 필레몬은 푸른 그림자의 형태로 자신의 정원에 다가온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필레몬이 말했다. “그 끔찍한 벌레가 당신보다 앞서서 왔었어요. 당신은 그를 지금 당신의 형제로 알아보고 있군요. (...)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는 당신 또한 계실 겁니다. 내가 시몬이었을 때, 나는 마법적인 책략을 써서 그로부터 도망치려 애썼고, 결과적으로 당신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제 내가 그 벌레 같은 존재에게 내 정원에 머무를 자리를 내주니까, 당신이 오시는군요.”<sup>162)</sup>

용은 필레몬의 입을 빌려 자신이 결국 ‘그 벌레 같은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161) Jung CG(2009): 같은 책, p342.

162) 위의 책, p359.

써 신의 온전한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이제 내가 그 별레 같은 존재에게 내 정원에 머무를 자리를 내주니까, 당신이 오시는군요.” 이 구절은 전체 『레드 북』을 요약하는 키워드이다. 융은 자서전에서 “악의 실재성을 인식하게 되면 선은 필연적으로 대극의 반쪽으로서 상대화된다. 악도 마찬가지로 상대화된다. 그러한 인식은 선과 악을 역설적인 전체성을 구성하는 반반으로 변환시킨다”<sup>163)</sup>라고 했다. 암흑의 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신의 다른 대극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함께 온다는 것, 그리고 신의 대극성을 자각할 때 신의 대극을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드 북』의 이 마지막 장면을 정확히 반영하는 말이다.

융은 무의식과의 대면에서 무의식이 가하는 어둡고 파괴적인 영향력, 즉 악마적인 기세와 맞서 씨름하면서 ‘사탄’에 대한 자각에 이르렀다. 융이 겪었던 무의식과의 대면과 아니마의 분화 과정 자체가 무의식의 ‘사탄과 같은’ 영향력의 체험이었다.<sup>164)</sup> 그리고 사탄이 일으켰던 누미노제적인 역동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것이 수반하는 목적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 융(1953)은 “그것은 암흑의 지배이며, 이 또한 하느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시련으로 느껴진다”<sup>165)</sup>고 했다.

융은 무의식을 대면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체험이 지니고 있는 초개인적이고 구원적인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융(1952)은 이 체험을 “자신이 인간임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하느님의 신화는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다”<sup>166)</sup>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폰 프란츠는 “내면에 있는 양 대극의 갈등을 의식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즉각적인 구원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구원되지 못한 공허하고 무기력한 상태로부터의 해방감이다”<sup>167)</sup>라고 했다. 그것이 사탄의 반대 극인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이다. 그리스도는 무의식과 대면 과정에서 다가왔던 엘리야, 시몬, 필레몬 같은 심령들의 힘과

163) Jung CG(1989a): 같은 책, p329.

164) 융은 그의 자서전 제7장 ‘무의식과 대면’에서 “오늘날 나는 아니마와의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감정들(emotions)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융이 무의식과의 대면에서 겪었던 격렬한 감정들의 주범이 아니마였음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위의 책, p188.

165) Jung CG(1975): 같은 책, p134. 1953년 11월 24일자 서신.

166) Jung CG(1969c): 같은 책, p408.

167) Von Franz ML(1998): 같은 책, p166.

지혜가 용의 의식 안에 응집되어 결정화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용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축인 신의 대극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다. 용은 『욥에게 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욥은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다. 그 반목이 아주 극단적이어서 욥은 하느님 안에서 '구원자'와 하느님께 '대적하는 자'를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한다. 욥은 야훼 안에 악이 있다고 확신하는 만큼이나 똑같이 선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인간에게서 동시에 구원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야훼는 인간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박해자와 구원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한 측면은 다른 측면만큼이나 실제적이다. 야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순이요, 내면의 대극을 갖고 있는 전체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어마어마한 역동성, 그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발휘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다.<sup>168)</sup>

신의 대극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의 대극에 대한 자각은 대극 융합으로 나아가는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딩저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또한 거기로부터 솟아 나와야 했던 원래의 무의식적인 전체성과 삶의 단일성이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69)</sup>고 했다. 또한 용(1936)은 신의 이중적인 면모를 깨닫게 되면 개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올라오게 된다고 했다.<sup>170)</sup>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은 대극 융합을 통해 인간 안에 육화하는 하느님 자신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신의 이미지’이다. 용(195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위협적인 갈등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교인은 신성으로 넘어가는 해방감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갈등의 와중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께 선포된 부담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항상 달려 있다.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하느님의 이미지는 인간 안에 실현될 수 있고 하느님은

168) Jung CG(1969c): 같은 책, p369.

169) Edinger EF(1974): *Ego and Archetype*, Penguin Books Inc, Baltimore, pp96-97.

170) Jung CG(1988): 같은 책, p884. 1936년 3월 4일 세미나.

인간이 될 수 있다.<sup>171)</sup>

에딩저는 “하느님의 육화는 신성이 지금 의식의 성찰을 위한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sup>172)</sup>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중적인 신의 본성을 인간이 의식성을 견지하고 지켜보면 하느님은 변모의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sup>173)</sup> 하느님이 변모한다는 것은 신의 대극이 자아 의식 안에서 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의 의식성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식성이란 신의 대극성을 자각한 개인이 어느 한쪽 극과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대극의 긴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 의식성의 장(場) 안에서 신의 대극은 융합될 수 있다. 그것이 하느님이 변모하고 육화하는 과정이다. 융(1952)은 인간의 의식성을 하느님이 변모하는 동인으로 보았고 이를 “하느님을 아는 자는 누구라도 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sup>174)</sup>는 말로 표현을 했다. 폰 프란츠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의 인간화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전체성 안에 존재하는 양 대극 간의 긴장을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상징이다”<sup>175)</sup>라고 했다.

이제 융은 ‘고통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것으로 『레드 북』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고통의 아름다움을 가져 왔다. 그것이 그 벌레를 환대한 자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거든.<sup>176)</sup>

신의 대극을 자각한 사람은 자신을 개성화(個性化)로 몰아붙이는 추동력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며, 신의 지혜, 소피아(Sophia)의 시작이다. 융(1952)은 하느님의 내면의 모순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의 빛 안에서 신의 누미노제를 겸비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했다.<sup>177)</sup> 폰 프란츠는 소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1) Jung CG(1969c): 같은 책, p417.

172) Edinger EF(1996b): *The New God-Image*, Chiron, Wilmette, p53.

173) Edinger EF(2002): *Science of the Soul*, Inner City Books, Toronto, p35.

174) Jung CG(1969c): 같은 책, p391.

175) Von Franz ML(1998): 같은 책, p165.

176) Jung CG(2009): 같은 책, p359.

177) Jung CG(1969c): 같은 책, p377.

우리를 악으로뿐만 아니라 선으로도 몰아붙이는 무의식의 이중성과 모호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인물이 있다. 그것은 신적인 소피아(Divine Sophia) 혹은 성령(Holy Ghost)이다. 다시 말해 무의식의 역설을 통합해주는 자기(the Self)이다. 소피아는 우리를 더욱 높은 의식성으로 인도해준다. 소피아는 우리를 개성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그 어떤 자기기만도 허용치 않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내면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목소리이다.<sup>178)</sup>

소피아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대극 융합의 과정 역시 ‘아름다운 고통’이다. 에딘저는 대극 융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서 화염과 같은 정동이 더는 엄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극 융합의 과정에서는 그 화염과 같은 정동을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즉 정동을 겪는 것이 자기(the Self)와의 지속적인 대화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sup>179)</sup> 그것이 ‘아름다운 고통’이다.

### 5. 대극 융합의 상징 ‘자기’

융(1938)은 신의 대극의 융합을 지향하는 인간 내면의 성장 작용을 ‘자기’(the Self)라고 불렀다. 자기가 배열되면 갈등은 창조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고 개인은 심리적 구원의 효과를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한 개인이 아니마(또는 아니무스) 문제와 충분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씨름하여 그것과 더 이상 부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은 다시 그 지배적인 성격을 바꾸고, 정신의 가장 심오한 핵심인 자기를 드러내는, 새로운 상징적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다.<sup>180)</sup> 자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인생을 특징짓는 반대 극들을 극복하는 진정한 화해의 상징이다. 자기의 상징은 평화와 전체성을 만들어낸다.<sup>181)</sup>

융(1954)은 “자기는 대극 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며, 심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신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sup>182)</sup>고 했다.

178) Von Franz ML(1998): 같은 책, pp166-167.

179) Edinger EF(1995): 같은 책, p100.

180) Jung CG(1964b): 같은 책, p196.

181) Jung CG(1988): 같은 책, p792. 1936년 1월 29일 세미나.

182) Jung CG(1969c): 같은 책, p261.

융은 『레드 북』의 〈정밀 검증〉 3장에서 인간의 정신 안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로써 자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기와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신에게 닿는다.<sup>183)</sup>

신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통해서 신에게 닿는다. 우리가 자기를 통해 신에게 닿을지라도 자기가 신은 아니다. 신이 나타날 때, 신은 자기의 뒤에 있고, 자기 위에 있고, 자기 자체이다.<sup>184)</sup>

여기서 융은 이미 자기가 신의 이미지가긴 하지만 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기를 인간 정신 영역 안에서 포착되는 이미지로서 그 실체를 한정 짓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기를 인간의 정신 안에서 그 활동이 목격될 수 있는 신의 에너지를 표상하는 상징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융(195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작용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느님과 무의식이 두 가지 다른 실체인지 말할 수 없다. 무의식 속에는 꿈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전체성의 원형이 있으며, 다른 원형들을 이 중심 원형에 연결하는 의식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경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성의 원형이 하느님 이미지와 유사한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유사성은 이 중심 원형이 항상 신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들을 생산한다는 특이한 사실에 의해 더욱 공고해진다. 무의식이 곧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특정한 내용물 즉 자기 원형이 하느님 이미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자기 원형과 하느님 이미지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다.<sup>185)</sup> 자기를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이라 불러도 무방하다.<sup>186)</sup>

따라서 융(1955-56)은 “자기는 우리가 늘 ‘하느님’으로 언급하는 것과 오직 개

183) Jung CG(2009): 같은 책, p338.

184) 같은 곳.

185) Jung CG(1969c): 같은 책, pp468-469.

186) Jung CG(1966): 같은 책, p238.

념상으로만 구분될 수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기와 하느님 두 개념은 명백히 현실의 한 조건인 하나의 동일한 신성한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187)</sup>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융은 인간이 신의 역설적인 대극을 창조적으로 직면하여 자신의 인격의 전체성인 자기 안에서 융합하는 것을 현대인들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이 육화하는 신화로 본 것이다.

### 결론: 융 심리학의 ‘심리학적 신생성적’ 관점이 지니는 의의

융의 무의식과의 대면으로부터 시작된 신의 대극 융합의 ‘아름다운 고통’의 과정은 거의 40년 가까이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36년이 지나고 나온 융의 저작 「옴에게 응답」(1952)과 『융합의 비의』(1955-1956) 등은 그 과정들을 경험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완성한 그의 만년의 결실들이다. 융은 「옴에게 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결 불가능한 갈등과 그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발생시킴을 통해 인간을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모든 양 대극들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대극 갈등의 괴로움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함을 통해 인간은 ‘대극성’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자신을 사로잡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안에 하느님이 육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신의 갈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느님에게 바칠 수 있는 신성한 예배이다.<sup>188)</sup>

이 구절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인 마음의 갈등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대목이다. 또한 인류가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찾아왔던 신이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답도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인간은 신의 갈등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평생 동안 겪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육화하기를 원하는 신의 대극 갈등이 의식에 발발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융(1952)은 “하느님의 역설적인 본성이 인간에게 그 본성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역설적 본성은 인간을 양 대극

187) Jung CG(1970): 같은 책, p546.

188) Jung CG(1969c): 같은 책, p416.

으로 산산이 찢어놓고 그를 걸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갈등으로 몰아 넣는다”<sup>189)</sup>라고 했다.

또한 융(1956-57)은 인류가 그렇게 찾아 헤매왔던 신이 인간 각자 안에 경험적인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의 역설은 인간이 겪는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양 대극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된다. 인간의 고통은 자신의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한 역설적인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하느님을 반영하는 의식성을 갖추게 해주고, 또한 성인이 된 인간의 보살핌에 맡겨진 신성한 아기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간을 선택하여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sup>190)</sup>

융의 지대한 공헌은 인간의 정신 안에 신이 탄생하고 육화하는 ‘심리학적 신 생성적’(psychological and theogenic)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인류의 주요 종교들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 왔지만, 현대인들의 의식에 부합하는 경험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구명(究明)했다는 데서 융 심리학의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융의 사상은 지독한 마음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불안과 공허를 겪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구원의 빛이 되어 준다.

인간의 정신 안에 신이 육화된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의 품격은 신성의 차원으로 드높여졌으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신적인 삶의 참여자가 되었으며, 신의 자기실현이 지속할 수 있게끔 새로운 책임을 떠맡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께 의존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또한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왕에게 비위를 맞추는 찬양을 바치거나 혹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에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바치는 대신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정신 안에서 포착되는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이 하느님에

189) 위의 책, pp453-454.

190) Jung CG(1989b): 같은 책, p741.

대한 새로운 예배 행위이며 하느님과의 대화가 될 것이다.<sup>191)</sup> 이로써 인간의 정신은 특별한 단계로 끌어 올려졌다. 인간의 정신은 그 안에 신성 자체가 가두어 지고, 머물러 있고, 태어나는 신의 요람이요, 자궁이며, 거룩한 그릇이 된 것이다. 이것은 실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sup>192)</sup>

하지만 누구나 그 기쁜 소식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정신 안에서 신이 육화하는 과정에 수반하는 심리적 고통을 의식적으로 지켜보고 견뎌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기쁜 소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융은 보여주었다. 융이 『레드 북』을 통해 보여준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아가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심리적 고통이 지닌 원형적인 배경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없다면 고통은 고통일 뿐 거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구원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융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신에 대하여 순진한 낙관론을 지닌 대다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의 선성(善性)에 의존하여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신의 사탄적인 측면이 지닌 압도적인 힘을 치열한 의식성을 지니고 감당해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신에게서 오는 기쁨을 말한다.

융의 사상이 단지 광범위한 지성적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에서 신의 대극을 융합하는 고통을 치열하게 겪고 그것을 경험 과학적으로 정리해낸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융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다 높은 가능성들의 현존 앞에서 있는 것처럼 늘 불안을 느낀다.”<sup>193)</sup> 융의 사상이 대극의 갈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신의 현존 앞에서 있는 한 인간이 느꼈던 불안과 그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느낀 불안감은 신성의 대극을 상당한 경지에서 융합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신성의 육화를 실현한 자, 달리 말하면 신의 현존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경외심으로 보인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낸 야훼 하느님 앞에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모세가 신의

191) Jung CG(1975): 같은 책, p316. 1956년 6월 30일자 서신.

192) Jung CG(1988): 같은 책, p981. 1936년 6월 3일 세미나.

193) Jung CG(1977): *C. G. Jung Speak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58.

화염을 객체적 대상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일으키는 대극 갈등을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신의 현존 앞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의 대극을 높은 경지에서 융합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의식성이다.

융은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번뇌가 신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그것이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견뎌낼 힘과 지혜를 준다. 융의 사상은 자신이 평생 겪었던 ‘아름다운 고통’으로부터 추출되어 나온 연금술의 영약, ‘엘릭시르’(elixir)이다. 융의 『블랙 북』과 『레드 북』에서 드러나는 그의 내면 체험이 이 약이 제조되는데 필요한 원재료였으며, 그의 저작들은 그것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약은 현대인들이 겪고 살아가는 영혼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확실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이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이사야서 45,7)

## 참 고 문 헌

- Edinger EF(1974) : *Ego and Archetype*, Penguin Books Inc, Baltimore.  
 \_\_\_\_\_ (1990a) : *Goethe's Faust*,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1990b) : *The Living Psyche*, Chiron, Wilmette.  
 \_\_\_\_\_ (1994) : *The Eternal Drama*, Shambhala, Boston.  
 \_\_\_\_\_ (1995) : *The Mysterium Lectures*,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1996a) : *The Aion Lectures*,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1996b) : *The New God-Image*, Chiron, Wilmette.  
 \_\_\_\_\_ (1999) : *Archetype of the Apocalypse*, Open Court, Chicago & La Salle.  
 \_\_\_\_\_ (2002) : *Science of the Soul*, Inner City Books, Toronto.  
 Hollis J(1995) : *Tracking the Gods*,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2004) : *Mythologems*, Inner City Books, Toronto.  
 Jung CG(1954) :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56) : CW 5, *Symbols of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60)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1) : CW 4, *Freud and Psycho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4a)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4b) : *Man and His Symbols*, Anchor Books, New York.
- \_\_\_\_\_ (1966) : CW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7) : CW 12, *Alchemical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9a) : CW 9 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9b) : CW 9 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9c)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0)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1) :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5) : *C. G. Jung Letters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7) : *C. G. Jung Speak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4) : *Seminar on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8) : *Nietzsche's Zarathust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9a)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 \_\_\_\_\_ (1989b) : CW 18, *The Symbolic Life : Miscellaneous Writin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97) : *Vis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2008) : *Children's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2009) : *The Red Book*, Norton, New York.
- \_\_\_\_\_ (2020) : *The Black Books I*, Norton, New York.
- Moon B(1997) : *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Shambhala, Boston & London.
- Von Franz ML(1988) : *The Way of the Dream*, Windrose Films, Ontario.
- \_\_\_\_\_ (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2) : *The Golden Ass of Apuleiu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3) : *The Feminine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_\_\_\_\_ (1998) : *C. G. Jung His Myth in Our Time*, Inner City Books, Toronto.
- \_\_\_\_\_ (2002) : *Animus and Anima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 Shim-Sŏng Yŏn-Gu 2021, 36 : 2

## 〈ABSTRACT〉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the Soul and the Opposites  
in God in *The Red Book***

Ki-Hwan Kim \*

*The Red Book* is a personal record that contains Jung's psychological self-experiment and describes his own experiences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out *The Red Book*, Jung describes how he got caught by the spirit of the depths and dethroned the spirit of this time, how he regained his lost soul by getting to the bottom of inner processes, how he differentiated the soul upon encountering the various aspects of his soul, and finally how he confronted God approaching Jung in the form of the divine opposites.

The spirit of the depths as a personification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aught up with Jung and launched him into the individuation process. The spirit of the depths was "the God yet to come". Jung realized that he had been driven by the collective spirit of his time and then set off on a journey into a new territory of life under the guidance of the spirit of the depths. Jung first encountered his lost soul, afterwards experiencing various aspects of the soul-spirit duo such as Salome-Elijah, Helena-Simon, and Baucis-Philemon.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e initial experience of the soul can appear to the ego as a Satanic force which darkens the consciousness. *The Red Book* describes how Jung consciously integrated the Satanic force and came to realize the meaning of it. Jung's experience of emotionally gripping aspects of the soul led him to the awareness of the dark side of God, Satan, while the insights he gained from that Satanic emotionality led him to the awareness of the bright side of God, Christ. Through this process, he finally encountered the opposites in God. Jung also referred to the Self as an image of God which manifests itself in the psyche.

Jung later discovered God as a phenomenal psychic reality which incarnates

itself from the unconscious into the conscious. He did it in terms of strict empirical science. Although the incarnation process of the deity is the main cause of psychological conflict and distress of a human being, if accepted consciously, we come to realize that the incarnation process of the deity in the psyche is the ultimate teleology and meaning of our life as well.

**KEY WORDS** : The spirit of the depths; Encountering the soul; Differentiation of soul-spirit; The opposites in God; Psychological and theogenic standpoint.

---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Korea*